

이름없는 이들이 다져가는 겨레사랑의 자리

우리말 우리얼

제 135 호 2024년 6월 27일

◀ 차례 ▶

<박희림> 광화문 현판을 한글(훈민정음체)로 바꿔 걸라	2
<22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는 한글을 빛내고 나라말을 지킬 법을 만들라 리대로 ...	4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1 이오덕	8
<우리말 동시> 참꽃이 필 때면 "	20
<우리말 동시> 맑치(은어) 김리박	24
<우리말 동시> 장미 권순채	26
<내가 안 쓰는 말> 화 최종규	29
묘사 분류집 최영자, 최응구	33
전쟁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우인오랑	54
툰드라 - 북극권 홍석화	64
동물과 나누는 마주이야기 증정광자	74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편집부	83
알립니다	100

펴낸 곳 :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화: 010-4715-9190(이대로)

주소 : 충주시 신니면 광월리 356번지 이오덕학교

전자우편 주소: 25duk@naver.com, idaero@hanmail.net

누리집 주소 : 우리말 우리얼 <http://cafe.daum.net/malel>

<밝힘글>

광화문 현판을 한글(훈민정음체)로 바꿔 걸라

한글은 우리 겨레의 자랑이요 세계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과학글자이다. 우리는 광복 이후 반세기 만에 한글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식수준을 높여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정보통신의 강국이 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한류는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과 한글이 그 밑바탕이고 뿌리다.

경복궁은 단순한 옛 궁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상징이다. 그 경복궁에서 자주, 애민, 실용 정신으로 한글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바라면서 새로 세운,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의 현판은 당연히 한글이어야 한다.

세종 임금의 “우리나라 말은 중국과 다르다”는 자주정신으로 한글을 만들었다. 이 자주정신을 살리려면 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뒤에 보이는 광화문 현판은 한자가 아니라 한글이어야 한다. 한자 현판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중국의 일부 지도자가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아직도 한자를 높이고 한글은 낮추어 본다는 인상을 줄 뿐이다.

이제 국가유산청은 지난날 문화재청이 고집하던 ‘원형 보존(복원)’이라는 과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가유산을 현대 사회에서 활용하고 나라 앞날을 밝히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는, 여러 번 불타고 다시 세워져 무엇이 원형인지 분명하지 않은 광화문의 현판에 대해서 ‘원형을 보존’한다는 낡은 생각으로 만든 복제 한자 현판을 떼어내고, 나라 앞날을 밝

게 할 자주문화를 상징하는 한글 현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옛 역사 건물에 있는 모든 한자 현판을 한글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서 세종대왕 동상 뒤로 보이는 한자 현판만 한글로 바꾸자는 것이다. 오늘날 한글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달고 한글을 더욱 빛내자는 것이다.

한글단체에서는 이미 『훈민정음(해례본)』에서 글자를 모아 짜 광화문 현판을 본보기로 제작하였고 오늘 여기에 가지고 나왔다. 광화문의 한글 현판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한글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 독창성, 과학성, 자주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류 문화 힘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글단체와 많은 국민은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다는 것이 나라에 이익이 되고, 시대정신에도 맞는다고 오래전부터 정부에 건의해 왔는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글 현판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밝혔으니 우리 한글단체는 이를 지지하고 환영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뜻을 받아 광화문에 걸린 한자 현판 ‘門化光’을 한글 ‘광화문’으로 바꾸는 논의를 당장 시작하라.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살리고, 나라 앞날을 밝게 한 것발이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펼치는 중요한 일이다.

단기 4357년(2024년) 5월 29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등

<22대 국회에 바란다>

국회는 한글을 빛내고 나라말을 지킬 법을 만들라

리대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22대 국회 개원을 환영하면서 새 국회에 나라말을 지키고 빛낼 법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로 후진국인 나라를 선진국 문턱까지 일으켰는데, 일반 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정부기관과 공무원들까지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나라말을 못살게 굴어서 국민정신이 흔들리고 나라가 몹시 어지럽다. 그래서 우리말사랑단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주장해도 듣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나라말을 지키고 바르게 쓰자고 하는 사람이 시대 흐름을 모른다고 바보로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 외국에서는 한글로 피어난 우리 문화 한류가 인기를 얻고 우리말을 배우려는 이들이 몰려드는데 나라 안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 국어기본법을 어긴 서울시 알림 글(왼쪽)과 부산시를 영어상용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새로 생기는 부산시 법정 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으로 짓겠다는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

거리엔 영어 간판이 나날이 늘어나고 아파트이름과 회사이름도 우리말로 된 이름보다 외국어로 지은 이름이 많다. 일반 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공공기관까지 영어를 마구 섞어서 글을 쓴다. 부산시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를 영어상용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더니 새로 생기는 동 이름을 ‘에코텔타동’이라고 외국어로 짓겠다고 한다. 주민이 영어로 아파트이름을 짓고 마을이름까지 지어야 집값이 오른다고 요구하니 부산시는 서슴없이 좋다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 통일신라가 중국 문화를 섬기면서 땅이름, 사람이름, 관직 제도까지 중국식으로 바꾼 버릇이 중국 섬기는 사대주의로 뿌리내렸는데 이제 영어와 미국 섬기기로 되살아나고 있다. 인천시에는 센트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 곳에 ‘센트럴파크역’도 있다.

일본 식민지 때에 일제가 강제로 창씨개명하게 한 것을 비판하면서 오늘날 우리 스스로 미국식 창씨개명을 하고 있다. 그 나라말은 그 나라 얼이고 정신으로서 그 나라가 일어나고 튼튼하려면 가장 먼저 나라말을 지키고 바르게 쓰야 정신력이 튼튼해져서 나라가 힘차게 일어난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말할 것이 없고 정치인과 공무원들까지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제 나라말을 마구 짓밟고 있다. 이제 제 나라말을 버리고 외국말을 마구 섞어서 쓰는 잘못을 시민 단체가 말로 해서 바로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제 강점기에 선열들이 목숨까지 바치며 우리 말글을 지키고 갈고 닦았고 광복 뒤 어렵게 한자로부터 해방되어 나라가 발전했는데 제 나라말보다 미국말을 지나치게 섞어서 우리 말글이 바람 앞 촛불 꼴이다.

우리 겨레는 반만년 동안 써온 우리말이 있고 온 누리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인 한글을 가진 겨레다. 그러나 이 한글이 태어나고 500년 동안 쓰지 않다가 일본제국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공문서도 한글로 쓰고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을 했고, 1948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글전용법을 만들었고, 2005년에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우리말을 한글로 쓰는 말글살이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우리 말글로 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 그 바탕에서 민주주의와 경제가 빨리 발전했고, 정보통신 강국이 되었으며 우리 문화가 꽃피어서 ‘한류’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 문화를 즐기려고 몰려들고 있는데 한글을 짓밟는 것은 복 떠는 일이다.



▲ 1980년대까지 명동거리(왼쪽)에 영문 간판이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온통 영문간판으로 가득 찬 명동거리 모습(오른쪽).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간판은 한글로 쓰게 되었지만 지키지 않는다.

이제 국회에서 제 나라 말글보다 외국 말글을 더 섬기는 못된 버릇을 버리고 제 말글을 더 사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에 한글현판을 달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 국민 교육장으로 만들어 한글을 빛내야겠다. 그리고 국어기본법을 어기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는 법 개정을 해주기 바란다. 국어기본법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을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고 한류를 세계인이 즐기도록 하자. 세계 으뜸 글자인 한글로 이만큼 일으킨 나라에 다시 기운을 불어넣자. 이는 반만년 전에 한 배검(단군)이 옛 조선을 세울 때 내세운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

정신”을 한글로 빛내는 것이다.

[알림] 5월 30일 부산시 강서구가 새로 생기는 법정 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이라고 짓겠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했는데 승인받지 못했다. “외국어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 진흥 조례 등에 부합하지 않다”는 까닭이었다. 지난날 행정안전부가 외국말로 된 법정 동 이름을 승인하면 그렇지 않아도 외국말이 우리말을 짓밟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한글단체는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했는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제 나라말을 업신여기고 남의 나라말을 더 섬기는 못된 버릇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 브레이크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s://www.breaknews.com/1034698>



▲ 고욤나무에 묶여있는 먹물이(말). ©이오덕학교

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 - 1

이오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창립대표

일하는 사람이 글을 써야 한다

노동자들도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하면 세상의 글쟁이들은 거의 모두 비웃을 것 같다.

“뭘, 노동자가 글을 써? 모든 게 전문(앞글)으로 돼가는 세상에 일꾼들은 일만 할 것이지. 임금 올려라. 일하는 시간 줄여라 하여 농성하고 데모하고 하더니 이제는 글까지 쓰겠다고? 참 별꼴 다 보겠네.”

그러나 이런 따위 말에 일일이 대답할 것도 없겠다.

노동자가 써야 할 글을 생각하니 여러 가지 문제가 떠오르는데, 그중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들어보자.

첫째, 왜 써야 하나?

둘째, 어떤 글을 쓰나?

셋째, 써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 왜 쓰나? 사실 이런 물음은

필요가 없다.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글이어야 하겠는데, 왜 써야 하나 하고 그 까닭을 알아서 쓴다면 좋은 글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지 않을 수 없어 쓰는 까닭을 스스로 물어 확인 할 필요는 있다. 왜 쓰는가? 한마디로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그 소중한 삶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삶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겨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글도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방 안에 앉아 밤낮 글만 쓰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보여주겠는가? 지금 우리 사

회는 온갖 글이 온갖 인쇄물에 실려 나와 엄청난 글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 정작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할 사람들은 일만 하다 보니 쓸 틈도 없고, 또 스스로 무식하다는 열등감에 빠져 글을 못 쓴다. 그래서 사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떤 글을 쓰나? 노동자들이 쓰는 글은 긴 소설 같은 글이 아니고 짧은 이야기글이 적당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나 주장을 쓴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노동자들은 이른바 문인들이 쓰고 있는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를 흉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쓰는 글은 소설이니 동화니 수필이니 하는 따위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냥 이야기다. 굳이 글의 갈래를 자세하게 밝힌다면 생활 이야기, 겪은 이야기, 들은 이야기, 일기, 편지…… 이렇게 되겠다.

나는 일하는 사람들이 쓴 이런 이야기글이 문학이라고 쓴 작품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까닭

은 신춘문에 작품보다 노동자나 일하는 어머니들이 쓴 살아온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을 주고 재미있게 읽히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로는 그렇다.

셋째, 써서는 어떻게 하나? 쓴 것을 잘 보관해두면 뒷날 귀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옛날에는 임금들이 역사를 기록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노동자가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

끝으로 노동자들에게 나는 다음 세 가지를 묻고 싶다.

첫째, 노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이 진짜 우리 말이다. 이런 우리 말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셋째,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는 결심이 서 있는가?

그렇다면 글을 쓸 것이다. 글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세상이니깐.

**살아 있는 글은 일 속에서 나온다
글은 왜 써야 할까**

일하는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하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내 생각을 적어보려고 한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 이라고 했는데, 노동이란 말을 {노동문학} {노동쟁의} 라고 할 때는 써야 하지만 【노동하는】 할 때는 순수한 우리 말로 {일하는}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먼저 글을 왜 써야 하나 하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기로 한다.

글을 왜 써야 할까? 입이 있으니 생각을 말로 하면 그만인데 왜 하필 그 까다롭고 귀찮은 글을 써야 하나? 어느 어머니들이 모인 자리에서 글쓰기 얘기를 한 차례 한 다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달라고 했더니 한 분이 말하기를 “글을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데 뭘 씁니까?” 했다. 그래 나는 곧 대답해주었던 것이다.

“쓸 것이 없다고요? 그럼 쓰지 말아야지요! 사람이 온갖 할 일이 많아 바쁜 세상에 글까지 필요없이 왜 씁니까? 쓸 것이 많은 데도 쓸 수가 없는 사람도 기가 막히지만, 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것저것 자꾸 쓰는 것도 아주 잘못이지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글로 쓸 것이 없다는 사람이 말은 잘도 한다. 말까지 못한다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입으로 할 말은 있지만 글로 쓸 말은 없다] 이렇게 되겠는데, 이것은 글을 별로 써보지 않은 사람이 흔히 가지는 태도다. 이런 사람들은 말과 글을 아주 다른 것으로 생각하여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글은 보통의 생각이나 일상의 말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태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받은 학교교육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글을 전문(앞글)으로 쓰는 사람들의 그 글이란 것이 잘못되어 있는 태도 원인이 있다.

일하는 삶의 문학

소설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만히 방 안에 앉아 글만 쓰고 있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그렇게도 많은지, 흔히 원고지 몇 천 장을 써도 끝

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소설가란 아주 별난 종류의 사람인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따지고 보면 소설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없으면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까지 짐작해서 자꾸 써대는 것이다. 그래서 얘깃거리가 떨어지면 이곳저곳 얘깃거리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사실 자기 얘기가 남의 얘기이고, 남의 얘기가 제 얘기 아닌가.

글만 쓰는 사람도 이렇게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허물며 일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많겠는가? 날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 거리에서 보고 들은 일들, 가정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일들, 이웃과 친구의 이야기, 아이들에 대한 생각…….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가슴에는 쌓여 있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면 이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문학책들보다 훨씬 많은 책이 될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는 글과 책이 말보다 더 큰 노릇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밭을 매면서 이야기를 하고, 길쌈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 농군들이 산길을 가면서 들길을 걸으면서, 아낙네들이 물레를 자으면서도 노래를 불렀다. 겨울의 긴 밤은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고 명석을 매면서, 버선을 깎고 옷을 지으면서 이야기로 새었다. 아이들한테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던가!

그것이 바로 훌륭한 문학이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삶 속에서 지어내고, 일하는 삶 속에서 전해주고 전해받는 문학, 남의 얘기를 짐작해서 대신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얘기로 표현하는 문학, 문인이라는 특수한 사람이 있고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사람과 그것을 듣고 즐기는 사람이 같은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문학, 말과 글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아니한 문학이 참으로 이상으로 된 문학이었던 것이

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는 말할 나위도 없고 어른들끼리도 이야기가 없다. 이야기는, 소설가란 특별한 사람들이 글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소설가들이 써놓으면 그것을 읽어주는 사람, 아니면 그런 소설로 씌어진 이야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더욱 나쁜 것은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잘도 해주는 편리한 세상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말할 필요도 쓸 필요도 없고 다만 편안하게 앉아서 보고 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들이 자기의 삶과는 아주 다른 엉뚱한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그것을 보고 듣는 재미에 깊이 빠져 깨어날 줄 모른다.

병든 문화환경

나는 언젠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

면서, 칼을 휘둘러 찌르고 치고 받고 하는 그 신물나는 중국 무협 비디오를 다섯 시간이나 잠시도 쉬지 않고 쳐다보는 승객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 몇 번이나 휘둘러본 일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병든 문화환경 속에서 길이 들여져 할 말도 없어지고 쓸 것은 더구나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을 써야 하고 쓸 때가 왔다. 왜 그런가 하면, 글로 씌어진 지난날의 문학은 거의 모두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삶의 느낌을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일하는 사람 스스로 자기의 삶과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깨어났기 때문이다.

오늘날은 옛날같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귀로 듣는 시대가 아니고 글을 쓰고 글을 읽는 시대가 되었다. 입으로 하는 말조차 글을 보고 하는 말이 되어 있고, 글을 보고 읽어서 배우는 말이 되었다.

《문학에 있어서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한 시간 동안 말이 없으므로 인하여…….》

이것은 조금 전에 들은 방송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글이지! 글도 아주 잘못된 글이다. 남의 나라 글만 읽어서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글을 써도 남의 나라 글투가 되고, 그렇게 씌어진 글을 모든 사람이 읽으니 글 뿐 아니라 이번에는 말까지 이렇게 고약하게 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 기괴한 일이다. 본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말이 생겨나고, 그 말에서 글이 생겨났으니, 글은 말을 따라 써야 옳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거꾸로 되어 글이 먼저 씌어지고 말이 글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글을 쓸 줄 모르는(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 글을 쓰는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옛날에도 글을 모르는 사람은 일만 하면서, 글만 읽고 쓰는 사람의 부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 옛날에는 말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 글을 따르게 되어 우리 말 전체가 병들게 되고, 따라서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겨레문학을 살리자

그렇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글을 써서 사람 노릇을 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아니, 일하는 사람이 쓴 글이야말로 진짜 살아 있는 글임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쓰는 글은 글에서 배운 글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 글, 살아 있는 말로 씌어진 글, 말과 글이 하나로 된 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서 글을 따라 끌려다니다가 짓밟혀 시들어가는 우리 말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겨레 말을 살릴 뿐 아니라 글도 문학도 살려야 한다.

문학을 살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헛소리가 아니다. 앞에서 소설가들,

시인들이 밤낮 책상에 앉아 남의 삶을 대신 표현하는 글을 쓴다고 했는데, 이제 문인들이 그런 대리 표현의 수고를 좀 덜 해도 되도록, 안 해도 되도록 일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과 그 삶의 감정은 누구보다도 그당자인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야만 지난날의 소설문학이나 시문학이 전반으로 빠져 있었던 제멋대로 된 값싼 상상이나 겉멋부리는 글재주에서 우리 문학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진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말과 글을 살려낼 사람도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 사람이야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이 가졌고, 살아 있는 말을 하는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흥내를 내지 말자

글쓰기는 모방인가, 창조인가

붓글씨라든가 펜글씨와 같은 글씨 쓰기는 글씨본을 옆에 놓아두고 그대로 따라 쓴다. 될 수 있는 대로 글씨본에 있는 그대로 써야 하는 것이 글씨 쓰기 공부다. 그런데 글(문장)을 쓰는 공부는 남의 글을 보고 흉내내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과 내 삶을 내 말로 써야 하는 것이지 남의 삶을 남의 말로 써서는 거짓글이 되고 죽은 글이 된다. 남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은 좋지만 [나도 그런 내용을 그런 모양으로 써보자]고 해서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글쓰기는 붓글씨 쓰기같이 모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하는 자기표현이 되어야 한다.

서예(붓글씨)를 예술이라고 하지만 모방으로 시작하는 까닭은, 글씨 자체에 어떤 삶이나 사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글에는 그것을 쓴 사람의 감정과 사상과 삶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글을 모방해서는 아무리 재주를 부린다고 하더라도(재주를 부리면 부릴

수록) 좋은 글, 감동을 주는 글은 될 수 없다. 또 글쓰기를 가르칠 때도 모방을 하게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의 개성과 재질을 다 내버리게 하고 삶을 짓밟아 병들게 하는 교육이 되고 만다.

왜 교육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모두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왔기 때문이다. 글짓기니 동시니 작문이니 문예니 하는 따위 이름으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아주 잘못된 흥내내기 교육을 받아 와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글쓰기에서만은 거의 모두 병신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 모두 지난날 교육에서 받은 해독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초등학교의 글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된 사람들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교과서로 글을 배웠다. 그 글은 일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

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한 글이 아니다. 교과서는 몸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로 만들어낸 글로만 짜여 있다. 거기 설사 일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본 노동자이거나 하나의 구경거리로 되어 있는 농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글만 읽고, 또 이런 글만 따라서 쓰도록 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교육이었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책에도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의 가난한 삶은 부끄럽게 여기고 덮어 감추게 되었다. 그 대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팔자 좋게 잘 먹고 잘 입고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높이 보고 부러워하여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기만 꿈꾼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부모들과 형제들, 이웃과 겨레를 멸시하는 종살이 감정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교육과 사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적어도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깨어난 일부

사람들을 제쳐놓고는—어른이고 아이고 그 정도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모두 정신이 분열된 환자같이 되어 있다. 자기를 멸시하고 못난 것으로 보면서 조금도 용납될 수 없는, 바탕이 다른 꿈만 좇고 살아가는 허망한 정신병자들!

일전에 나는 어느 지방 도시 근처에 있는 조그만 농촌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한 분을 만나서 그곳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해 그분이 담임했던 6학년 스물아홉 명 아이들 가운데서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달아나고 없는 아이가 셋이나 된다고 했다.

“농촌 사람들이 죽자사자 일해도 빚만 지는데, 밤낮 화려한 생활을 하는 도시 사람들을 쳐다보기만 하니 그렇게 되지요. 어디 저희 반뿐이겠습니까?”

집과 가족을 버리고 달아난 그 어머니들은 바로 정신이 분열된 병자들이다. 그 병은 사회가 주었고, 정치가 주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운 학교 공부에서 뿔속까지 스며들

었던 것이다.

마약을 주사해 넣는 교육

얼마 전에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었던 네 자매 자살 사건을 생각해보자. 동생들에게 약을 먹이고 저도 죽으려고 했던 그 아이는, 그렇게 어린 나이로 너무 일찍 쓰러졌다. 숙제로 「크리스마스 이브」란 제목의 글을 썼다고 했고, 방송에서 들은 「눈길」이란 동시에서도 이 아이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는가, 그래서 허망한 꿈만 꾸고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했다. 도시락 반찬이 부끄럽다고 점심밥을 싸가지 않는 아이가 문학가가 되고 싶어했다니, 이만하면 그 정신분열 상태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둘째아이는 날마다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다니면서 피아니스트가 될 꿈을 꾸었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자기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하여 엉뚱한 꿈만 꾸면서 살아가

게 하는 것은 흡사 어린 몸에 마약을 주사해 넣어서 마약 환자로 만들어놓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일기쓰기를 강요당하고, 시시한 문인들이 써놓은 동시를 마치 글씨본을 보고 따라 쓰듯이 쓰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쓰는 수필 흉내, 소설 흉내, 시 흉내를 내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하게 삶에서 떨어져나간 글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글들의 대부분이 일본 제국을 찬양한 문인들, 독재 정권에 빌붙어 출세한 지식인들의 글이었고, 그런 글이 글쓰기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교육으로 우리는 자기표현을 할 줄 모르는 국민이 되었다. 알맹이가 없는 글과 사람의 관심을 영똥한 데로 돌리는 속임수의 글이 문학이란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사실을 비틀어놓는 증언을 교묘한 말재주로 꾸며대는 거

짓 언론이 아직도 넘쳐 있는 까닭이 이리하다.

아이들의 글에서 배우는 것

여기서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할 일은, 우리가 쓰는 글이 우리 생각을 쓰는 것이지만, 그 생각은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서 우리나라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 삶에서 우려나지 않은 생각은 가령 그것이 옳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곧 제 생각인 양 써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글에서 배울 만하다. 잘못된 교과서의 해독을 입지 않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강요하는 생각을 결코 제것처럼 잘못 아는 일이 없고, 오직 자기의 체험과 생각을 쓰는 것이다.

《내가 여름에 영주에 가서 옷을 사 입었다. 갈 때는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을 마구 입고 신발도 거의 다 떨어뜨리는 운동화를 신고 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은어머니께서 작은아버지를 보시고 “야 옷하고 신 좀 사 주

소” 하셨다. 나는 좀 이상해졌다. 내 옷이 뭐 어때서 또 옷을 산단 말인가 생각해봤다.

나는 제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다. 옷을 사니까 참 좋았다. 신도 사니까 좋았다. 나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있었을 뿐이었다. 수박을 먹을 때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오셨다. 아주머니께서는 나더러 “니 촌에서 안 왔나?” 하셨다. 나는 그때 성이 왈각 올랐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촌에서 왔으면 어때요. 촌사람은 며 영국말 쓴답니까?” 했다.

“그래도 좀 똑똑하구나” 하는 말은 아주머니가 했다. 나는 어른들 있는 데는 대꾸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때는 성이 얼마나 났던지 말해 버렸다.

이만큼 도시 사람은 시골 사람을 깔보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시골 사람을 낮춰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시골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순박한 사람이 많다. 나는 오히려 도시서 사는 것보다는 촌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나의 옷」, 안동 대성초등학교 6학년 권재수.》

병든 사회에 물들지 않고, 잘못된 교육에 길들여지지 않은, 참으로 건장한 소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다. 이런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을 우리는 찾아가져야 한다. 야성을 우리는 모두 잃어 버렸다. 야성이야말로 참된 인간성인데.

어른들의 글에서도 배울 것이 많겠지만, 배우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 아이들의 글을 흉내내어서도 안 되지만, 어른들의 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이 아이들의 글 속에 있다. 우리가 아이들 글에서 무엇보다도 크게 배워야 할 것은 쉬운 말로 쓰는 것이다. 다음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책이나 어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다.

다음 글을 생각해보자.

《점심을 먹고 나물밭에 가서 풀을 뽑았다. 엄마·나·동생 세 사람이 풀을 뽑았다. 일곱 골을 뽑다가

아버지가 약통을 미고 배추에 약을 치기 시작했다. 배추는 다 치고 무를 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머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아버지는 엄마에게 화를 내었다.

“머 어애 매놓았기에 나물에 전부 흙을 덮어놓았노?” 하면서 눈을 한 바퀴 돌렸다.

아버지는 몇 골 치다가 “때려 치아부래” 해놓고 풀만 뽑고 “가만히 나도” 하면서 집에 가버렸다. 엄마는 아버지가 집에 가고 이렇게 말했다.

“할 말이 없어노니 사나가 뼈뜩그며 가지 보래. 사나가 저러는데 내가 머 하는데 일을 하노?” 하면서 계속 일을 하였다.

아버지는 다시 와서 약을 주었다. 아까 무에 주다가 갔으니까 무에 먼져 주었다. 요번에는 엄마도 화가 나서 아무 말 없고 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우스워서 속으로 나 혼자서 웃었다.

나중에는 집에 와서 웃으시기도 하였다. 엄마가 탁주도 사다주셨다.

나도 엄마 아빠처럼 시집가서 화를 내다가도 웃고 서로 아껴가면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다. 「우리 엄마의 화와 아버지 화」, 안동 대성초등학교 4학년 김대회.》

삶 속에서 슬기를 얻고, 삶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려는 참으로 건강한 아이다. 몸으로 살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쓴 글이다. 글을 머리로 쓸 것이 아니라 몸으로 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의 글에서 배워야 할 점이다.

반찬이 부끄럽다고 점심밥을 안 싸가는 아이들, 그러면서 문학가가 되고 싶어하고, 가수나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이런 글을 읽고 무엇을 느낄 것인지 모른다. 다만 이런 글을 쓰는 아이들은 고구마나 감자를 싸가지고 가도 당당하게 먹을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글은 이런 [어린이 마음] 이 자리난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우리말 동시>

참꽃이 필 때면

이오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창립대표
1960년대 쓰신 시

바람이 분다.
연둣빛 실버들 가지
흔들리는 긴 독에서
진종일 쭉을 뜯는 순이는
해어진 소매로 떨고,
덜거덕 덜거덕
마을 앞 신작로 돌자갈 길을
무거운 짐수레 끌고 가는 소는
바람을 안고 매를 맞는다.
가교사 양철 지붕이 우는 학교
운동장을 먼지가 휩쓸어 가면
측백나무 울타리 위 은빛 하늘에
까마귀 한 마리 날개를 희뜩이며
떨어지고
흐릿한 오후의 햇빛
교실에 꿰어앉아 벌을 서는 아이
는
학교에 못 나오는 순이의 하이얀

배고픈 얼굴을 생각하다
유리창에 퍼붓는 모래 소리를 듣
는다.
테르르르 떨리는 유리창
참꽃이 필 때면
바람이 분다.

학교 가는 길

물동이 이고 오는 어머니께
눈인사를 보내고
마을 앞에 나오면
나를 부르는 소리

저쪽 못자리 물속에
빨강 파랑 그림자가 달려간다.

구름 한 점 없이
오늘도 맑은 날씨

가슴을 펴고
하늘을 마셔본다.

종달새 울어 썩는
보리밭을 지나

피라미가 내뺄는 여울
들다리를 건너면

모래밭
방천 둑

아, 한 이름 향긋한
아카시아꽃 냄새
꽃그늘에 쉬어 갈까?

산에는
빠꾸기 소리

뿍아온 깜부기로
보리피리를 불면

멀리서 노랫소리
하하하 웃는 소리

꽃향기 안고
보리피리 물고
학교에 간다.

들로 가는 길

이슬 알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간다.

논물 속 파란 하늘
하늘을 걸어간다.

나는 열두 살
중학교에 못 가도

자랑스리 살아가야지

위인들처럼

물씬 풀 향내
가슴에 젖어

보리밭 사잇길
접어들면

피꼬르릉!

금빛 새소리

아, 벌써 왔구나.
네가 왔구나.

쳐다보면 언덕 위
눈부신 느티나무
연듯빛 새 잎!

하늘을 마시며 간다.
팽이를 꼭 잡고……

복숭아꽃 핀 동네

복숭아꽃 환히 핀 동네에

까치가 울었다.

미친 까치는 산기슭에서
나무를 쪼며 바위를 쪼며
몸부림쳤다.

뽀얗게 귀여운 알을 잃은
어미 까치

복숭아꽃 환히 핀 동네

참나무에 기어오른 소년은

까치 알을 내려오다 떨어졌다.

알을 팔아 공책을 사려던 소년은
그 길로 병원에 업혀 갔다.

그 소년은 커서

백마고지에서 죽었지만

지금도 그 동네에는 복숭아꽃이
피고 있을 게다.

까치가 없어진 동네에서

소년들은 탄피를 찾아

허물어진 골짜기를 파고 있을 게
다.

같이 가!

그래,

빨리 와!

아침 길

울타리 너머

오얏꽃

하얗게 핀 아침

학교 가는 보리밭 길에

종달이가 온다.

어서 가서

공을 차야지,

그네를 타야지.

오늘 미술 시간에는

보리밭 매는 우리 집식구들

그림을 그리자.

내가 일등을 해서

호미를 한 손에 들고

밭둑에서 만세를 부르는 그림

커다란 도화지에 가득 그려야지!

석아,

보얀 안개 걷혀가는 하늘을

종소리가 날아오는데

딸각딸각 필통 속

연필도 뚫다.

꽃

너의

웃음엔

모진

목숨에

자욱이 없다.

<우리말 동시>

맑치(은어)

김리박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울 핏줄은 진달래》시집에서.

흙물에는 못 살고 맑아야만 산다
니
너야말로 몸꼴 바뀌 선비가 되어
안대
누리가 하 어지러워 낚시 없이 나
뛰본다

길(2)

오르느냐 비탈길 내리느냐 재넘
잇길
치오르면 꼭대기냐 잣으면 바다
이나
눈앞에 트인 길인만 망설이는 빈
속이라

어머님 생각(1)

아버님 가시고 어머님 또 가시고
꽃내음 밀어 오는 아름다운 봄밤
에
한 아름 진달래 안아 갈쪽*을 우
러른다

길(3)

길없는 길잡아 꽃 돋우는 봄 내음
꽃*

* 갈쪽 : 서쪽, 곧 어버이 밭고장인 밀양 창원.

가는 때새* 오는 때새 그 사이를
또 때새
흐르는 가람 소리는 꽃들의 웃음
일까

* 봄 내음꽃 : 매화.

* 때새 : 시간.

길(4)

죽살이 일흔에 무엇이 남았을까
낭떠러지 바라보니 무서움이 솟
아난데
가슴속 깊깊은 곳에 외솔*은 가리
키니

* 외솔 : 최현배 선생.

봄 노래(1) - 하늘

봄철은 왔건만 차고 진 꽃샘이니

어느 때 꽃옷을 입어서 춤을 출까
남나라 꽃놀이엔 눈물이 돈다

봄 노래(2) - 땅

가람 풀려 흐르고 꽃봉오리 눈 비
비니
매 허리 숲속을 피뿔 소리 울리네
오는 봄 가는 겨울을 벗 삼아 나
그넷길

봄 노래(3) - 꽃

남나라 열 해면 내고장 된다는데
파뿌리 머리 이고 갈쪽*을 내다보
면
개나리 노란 빛같이 꿈결인 듯 돈
아나네

* 갈쪽 : 서쪽, 곧 어버이 믿고장인 밀양 창원

<우리말 동시>

장미

권순채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풀꽃 나무들아》 시집에서.

꽃이 아름다워
고운 향기 풍겨주며
다가가면
아!
난 몰라
가시가 무서워
화려함에
곱고 고운 사랑을 맺는다 해도
언제나 무서운 독이 있다.

아무리 아름답고 고와도
그중에는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불행스런 독이 숨어 있다.
그래도
깊고 깊은 향에 취해
사랑을 불태운다.

백합

아름답고
깨끗하고
향기 짙은 만큼이나
강인함이 있다.

산속 깊이
외로이 핀
하얀 꽃
그윽한 향기 찾아오는
별 나비 떼
날아왔다 가면
고운 꽃보다
알찬 열매 맺어진다.

산딸기

빼꾸기 우는 유월
 알알이 뭉친
 딸기의 새콤달콤한 맛에
 지난날 꿈을 열어주는
 젊은 날 이야기가
 산골짜기 곳곳에 배어 나온다.

촘촘히 박힌 덩굴에
 빨간 산딸기
 입맞춤에
 여름 깊어가고
 비 내리는 산골짜기에
 달콤한 맛에 취하네.

앵두나무

유리알처럼 고운 빛에
 사랑이 물들고
 녹음 짙은 우물가

앵뚝빛 고운 처녀 이고 가는
 물동이에
 무지개 한 쌍이 펼쳐지면
 땀기머리 총각이
 따라가다 말고
 눈빛으로 인사하네.

영경귀

웬 앞에 가시가 그리도 센지
 땅 위에 솟아오른 잎 줄기
 가까이 가지를 못해
 땅속뿌리는 하얀 살결같이
 부드럽고 고투라.

가시 돋친 잎사귀 무서워도
 꽃은 부드럽고도 끈적끈적
 인정이 있나 봐!

선한 사람 보이어 살고
 악한 사람 보이지 않는
 영경귀 가시

아무리 억세어도
 배고픔 달랠 때는
 어린잎 나물로 먹기도 하였지

패랭이꽃

아름다운 꽃 보고 취하다 보면
 천한 사람 쓰던 모자라 여기고
 냇가에 급게 필 때에
 패랭이 쓰고 지나는 사람
 반겨주며
 활짝 웃음 짓네

천한 사람 쓰던 모자에
 혼이 배어
 급게 피어
 천한 모습
 모자로 날려 버린 것이로다.

접시꽃

논매기 마치고
 집으로 오면
 접시꽃 울타리에
 접시든 여인이
 반겨 맞는다.

빨강, 분홍, 흰색, 노란 꽃들이
 웃음 머금고
 접시든 모습으로 반겨준다.

쭉쭉 뻗은 꽃대
 한 마리 나비가 찾아오면
 논매기 밭매기
 바쁜 일에
 하루 고됨을 잊는다.

<내가 안 쓰는 말>

화

숲노래 최중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운영위원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를 썼다.

이글이글 오르는 불로
밥을 익힐 수 있지만
활활 태우는 불길이면
폴폴 잣더미로 바꾼다

부글부글 끓는 부아로
마음을 태워 버린다면
훨훨 날던 이 날개를
스스로 꺾는 셈이다

비추는 불일 때에
둘레를 밝힐 수 있어
푸른한 불일 적에
얼음을 녹일 수 있지

무엇을 보고 답을까?
누구를 읽고 답을까?
부끄러울 일은 없어
나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면

덧 :

외마디 한자말인 ‘화(火)’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불’을 한자로 ‘화(火)’로 적는 셈인데, ‘화나다 = 불나다. 부아나다. 성나다’입니다. 추위를 녹이는 불이기도 하지만, 모두 태워서 재로 바꾸는 불이기도 합니다. ‘불나다. 부아나다. 성나다’는 이모저모 밍거나 싫다는 마음이 화 일어나면서 그만 모두 활활 불지르면서 까맣게 바꾸는 길을 나타낸다고 할 만합니다. 날개라면 가볍게 훨훨 날아요. 어깨를 활짝 펴면 시원합니다. 활개를 치듯 날아오르기에 싱그럽게 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와 달리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여기면서 꺼

리거나 부글부글 끓다가 부아를 내고, 이글이글 타올라 불을 내고 말아요. 혹 치밀거나 확 치솟을 적에는 문득 멈추고서 마음부터 돌아봐요. “활짝 피는 꽃”인지 “활활 태우는 불”인지 추스르고서, 환하게 웃음짓는 길로 차근차근 다독여요. 화들짝 놀라다가 활활 태우고 만다면 화끈 화끈합니다. 창피하거나 부끄럽지요. 둘레를 환하게 밝히는 눈빛으로 거듭난다면, 흰칠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온누리를 흰히 헤아리게 마련입니다.

부모

나비는 왜 알을 낳을까?
 푸른잎 값는 기나긴날 마치고
 작은고치에 웅크려 그린 꿈이
 날개로 거듭나 하늘빛 먹거든
 잠자리는 왜 알을 낳지?

물살을 가르며 실컷 놀다가
 물밖에 나와서 바람 쐬면서
 햇빛 별빛 꽃빛에 눈뿜어

어른은 왜 아기를 낳나?
 어질게 살림하는 하루 지나
 어머니로서 고요밤 품고
 아버지로서 노래낫 담네

낳으려면 나아가야 해
 나를 알고 너를 안고
 나긋나긋 날아오르면서
 나무처럼 숲 이룰 어버이야

덧 :

해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의 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레를 보면 ‘아버이’를 말하거나 찾는 일은 드물고, 으레 ‘부모(父母)’만 찾습니다. 한자말 ‘부모 = 아버지 + 어머니’인 열개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말 ‘아버이 = 어머니 + 아버지’인 열개입니다. 우리 말로는 ‘엄마아빠’처럼 으레 어머니·

엄마를 앞에 놓습니다. 아이를 사랑
 으로 돌보는 어른이기에 ‘아버이’입
 니다. 몸으로 낳은 아이도, 이웃과
 마을에 있는 아이도, 늘 사랑으로 따
 스하게 마주하면서 어질게 보살필
 줄 아는 마음인 사람인 ‘아버이’입니
 다. 사랑이 피어나지 않을 적에는
 ‘아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낳기만 했으면 어버이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어울릴 테지요. 나이만
 먹을 적에는 ‘어른’이 아닌 “철없는
 사람”이나 “늙은 사람”으로 여깁니
 다. 어질게 살림을 짓기에 ‘어른’이
 듯, 어른스러우면서 상냥하고 참하
 고 착하게 아이를 품는 매무새라서
 ‘아버이’입니다. 삶짓기·살림짓기·사
 랑짓기를 헤아리고, 사람이 곁에 들
 들숲바다를 푸르게 가꿀 줄 아는 눈
 빛과 손빛인 사람을 어버이답다고
 여깁니다.

한국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하늘빛을 담으면서 하나
 함께 함박꽃으로 한길
 해를 담아내 하얀 하루

고요밤을 깨우는 아침
 온빛을 세워 나아가는 길
 새롭게 춤추며 고운 나래
 깊고 이름답게 높은메

한겨레라면 한가람 한나라
 이웃하고 함께 한길 한살림
 해밝게 한웃 한집 한밥 한넛
 하늘뜻 실어 한글 한말 한얼

나는 하나이지만
 너랑 아울러 우리
 너나를 넘나들어 날고
 보금자리마다 나무숲 새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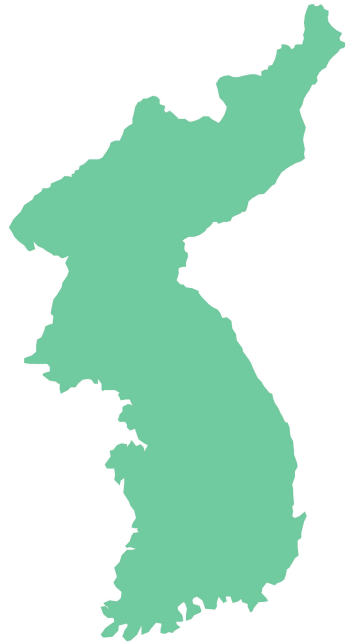
덧 :

이 나라를 이루는 겨레를 ‘한겨레’
 라 합니다. 한겨레가 이룬 나라일 적

에는 ‘한 + 겨레’이니까 ‘한 + 나라 =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를 한자말로 옮겨서 ‘한국(韓國)’입니다. 한자로 ‘한국’을 적기도 하지만, ‘한’은 그저 우리말입니다. ‘하늘·하나’를 가리키는 우리말이고, 서울에 있는 큰 물줄기는 ‘한가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마시기에 ‘한숨’입니다. 크게 벌여서 ‘한바탕’입니다. ‘한길 = 큰길’이기도 합니다. 하늘은 땅에서 보기에 더없이 크기에 ‘하늘·한 = 크다’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또한, 하늘은 둘이나 셋으로 못 갈라요. 크게 하나인 덩이입니다. ‘하늘·한·하나·하다(크다)’가 맞물리면서 ‘함께’로도 이어요. 크게 하나로 어우러진다는 뜻인 ‘함께’예요. 이 나라에서 쓰는 글에 붙인 이름 ‘한글’이듯, 이 나라에서 쓰는 말은 ‘한말’이라 할 만합니다. 이 나라에서 누리는 밥과 옷과 집은 ‘한밥·한옷·한집’이라 하면 될 테지요. 함박꽃처럼 크고 시원하게 어우러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터요 한누리요 한마을을 가꾸어 봐요. 함함하게 아끼고 함초롬히

빛나는 한동아리를 이루어 봐요.

- 끝 -



▲ 우리나라 지도. ©이오덕학교

묘사 분류집

최영자, 최응구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묘사 분류집》에서.

3. 머리

머리의 여러 부위 이름 :

가마 · 쌍가마 · 솟구멍 · 옆머리 · 앞머리 · 뒷머리

뒤통수 — 머리의 뒷부분. <그는 멋쩍은 듯이 말을 얼버무리며 뒤통수를 굽는다.>

귀밑머리 — 앞이마의 머리를 갈라 땅아서 귀 뒤로 넘긴 머리, 또는 귀의 가까이에 난 머리털. <귀밑머리 풀어준 남편(처녀로서 결혼하여 맞은 남편)>

귀머리 — 귀 뒤로 넘긴 머리털, 또는 귀 밑에 난 머리털. <그는 은회를 할끔 보며 귀머리를 쓰다듬어 올렸다.>

정수리 — 솟구멍이 있는 머리의 꼭대기 부분.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까지 흐른다(윗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랫사람까지 쪽 미치게 된다는 뜻).>

살쩍 — 귀와 관자놀이 사이에 난 머리털.

제비초리 — 뒤통수 아래에 뽀족하게 모여난 머리털.

꼭뒤 — 뒤통수의 한가운데.

여러 가지 머리 이름 :

고수머리(곱슬머리) · 반고수머리 · 흰머리 · 센머리 · 배냇머리 · 맨머리 · 이마머리 · 대머리(민대머리)

다박머리 — 다보룩하게 난 머리털, 또는 머리털이 다보룩한 아이. <대여섯 살 되어 보이는 다박머리의 귀엽게 생긴 계집아이가 내 눈을 끌었다.>

더벅머리 — 더부룩하게 난 머리

털, 또는 머리털이 더부룩한 사람.
 <까까중이는 더벅머리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소곤소곤하더니 나에게로
 다가왔다.>

다팔머리 — 다팔다팔 흔들리는
 머리털, 또는 머리털이 그런 아이.
 <다팔머리 소녀>

더떨머리 — 더떨더떨 흔들리는
 머리털, 또는 머리털이 그런 사람.
 <더떨머리 총각> <웅삼이는 계면
 짝은 생각이 나서 더떨머리를 급적
 급적하면서 열없게 웃었다.>

빈대머리 — 머리털이 많이 빠져
 머리가 벗어진 사람을 홀하게 이르
 는 말.

민머리 — 대머리 또는 쪽지지 아
 니한 머리.

달비 — 술이 적은 머리에 덧들이
 기 위하여 만든 쪽지를 땀 판머리.

치마머리 — 머리털이 적은 사나
 이가 상투를 맬 때 본머리에 덧둘러
 서 감는 판머리.

밀머리 — 달비나 치마머리를 들
 일 때 본래부터 있는 제 머리털.
 <옥분이는 큰머리를 내려놓고 밀머

리만 틀어 엮으니 몸이 여간 기뻐하
 지 않았다.>

큰머리 — 재래의 예식에서 여자
 가 본머리 위에 다리로 크게 틀어
 엮은 판머리.

판머리 — 밀머리에 덧대는 머리
 털.

덧머리 — 머리 위에 덧쓰는 만든
 머리.

풀머리 — 풀어헤쳐 거두어 올리
 지 않았거나 땅지 않은 머리털. <풀
 머리로 쪽진 것이며 희멀건 얼굴 빛
 깔이며 분홍 저고리며 옥색 치마며
 아내의 차림새는 모든 것이 빈틈없
 이 어우러진 것 같았다.>

쑥대머리 — 긴 머리털이 흐트러
 져서 어지럽게 된 머리.

새치 — 젊은 사람의 머리에 섞여
 난 흰 머리카락.

장구머리 — 이마와 뒤통수가 쑥
 튀어나온 머리 또는 머리가 그렇게
 생긴 사람.

갈기머리 — 머리를 땅거나 틀어
 올리거나 쪽지거나 할 때에 꺾잡히
 지 않고 밀으로 처지는 머리털. <고

추상투에 갈기머리를 목 뒤로 늘이고 작은 키에 딱 바라진 가슴을 내밀고 다니는 김 진사는 언제 보아도 알미웠다.>

남자의 머리 모양 :

가른머리 · 높은머리 · 낮은머리 · 넘긴머리 · 치머리(머리의 양옆과 뒤를 바짝 올려 깎은 머리)

상고머리 — 머리의 양쪽 옆 부분과 뒤쪽지를 치올리고 정수리가 평면 되게 깎은 머리. <박 노인은 젊어서 상고머리로 깎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한다.>

막머리 — 기르지 않고 뽀뽀 깎은 머리.

까까머리 — 뽀뽀 막 깎은 머리.

여자의 머리 모양 :

파마 · 단발머리 · 양태머리(갈래머리)

가랑머리 — (주로 어린 소녀의) 두 가닥으로 뺨아 늘인 머리. <그는 아직 가랑머리의 애티 나는 소녀였다.>

도투락머리 — 도투락땡기를 드러낸 머리.

모두머리 — 머리털을 외가닥으로 뺨아서 쪽진 머리.

바둑머리 — 어린아이의 머리털을 조금씩 모숨을 지어 여러 갈래로 뺨은 머리.

종종머리 — 아이들의 바둑머리가 조금 지난 뒤에 한쪽에 세 층씩 세 줄로 뺨고 그 끝을 모아 뺨아서 땡기를 드러낸 머리.

트레머리 — 꼭뒤에 틀어 올린 머리. <그의 트레머리를 풀면 머리채가 무릎까지 덮일 것 같다.>

꽃머리 — 꽃이나 잎 또는 그밖의 것으로 아름답게 꾸민 머리.

엷은머리 — 머리를 뺨아서 뒤로 둥글게 둘러엷은 머리.

머리와 병 증세에 관련된 이름 :

바람머리 — 바람을 쐬면 곱이 아픈 증세.

숫머리 — 숫내를 맡으면 곱이 아픈 증세.

채머리 — 병에 걸린 것처럼 머리

를 자주 흔드는 증세.

머리와 관련된 말 :

머리그물 · 머리빗 · 비녀 · 땀기 · 머리채(머리달) · 머릿수건 · 머리쓰개 · 머리술 · 머리밀 · 머리끄덩이 · 머리말 · 머릿기름 · 머리태 · 머리뼈 머리동이 — 머리가 시리거나 아플 때에 이마에서 머리로 둘러 동이는 물건.

머리병풍 — 머리말에 치는 작은 병풍.

머리단장 — 머리털을 매만져 곱게 꾸미는 일.

머리물감 — 머리카락에 들이는 물감.

머리빈침 — 머리에 꽂는 빈침.

머리살 — (주로 아프다, 어지럽다와 함께 쓰이며) 몹시 귀찮거나 복잡하여 괴로움을 느낄 때의 머리를 이르는 말. <머리살이 아프다.>

머리새 — 머리의 매무시 또는 머리 위에 쓰개를 쓴 모양. <머리새가 단정하다.>

머릿장 — 머리말에 놓고 물건을

넣어두는 장.

머리치레 — 머리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

머리꾸미개 — 머리를 치레로 꾸미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머리핀 — 머리카락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쓰는 핀.

머리꼬리 — 땡은 머리의 꼬리. <머리꼬리를 앞에 젖힌 처녀가 친절히 안내하여 주었다.>

머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 :

고슬고슬하다 · 곱슬곱슬하다 · 나스르르하다 · 니슬니슬하다 · 나실나실하다 · 나뭇나뭇하다 · 너스르르하다 · 더북더북하다 · 더부룩하다 · 덤부렁덤쑥 · 민숭민숭하다 · 반들반들하다 · 번들번들하다 · 번드르르하다 · 치렁치렁하다 · 칠칠하다 · 츠렁츠렁하다 · 함치르르하다 · 흠치르르하다 · 희스희스하다 · 끼슬끼슬하다 · 회끗회끗하다

머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 :

가웃가웃 · 살랑살랑 · 살래살래 ·

기웃기웃 · 까웃까웃 · 설레설레 · 잘
래잘래 · 절레절레 · 까닥까닥 · 까딱
까딱 · 끄덕끄덕 · 끄떡끄떡 · 끄떡끄
떡 · 끄떡끄떡

머리에 대한 표현 :

◆ 까만 머리가 못자리같이 술이
많다.

◆ 기름독에 빠진 것 같이 반들거
리는 머리.

◆ 쪽 바꾸니 같은 머리.

◆ 두루미 뽕지같은 머리.

◆ 수세미같이 헝클어진 머리.

◆ 새 등지 같은 머리.

◆ 고슴도치같이 까칠한 머리.

◆ 쥐꼬리 같은 머리.

◆ 파뿌리 같은 흰머리.

◆ 삼단 같은 머리.

◆ 머리에 서리가 앉다.

◆ 머리가 모시 바꾸니가 된다.

◆ 쪽 방석 같은 머리.

◆ 까치등지 같은 머리.

◆ 파뿌리처럼 센 머리.

◆ 풋밤송 같은 머리.

◆ 돼지털 같은 머리.

◆ 조롱박 같은 머리.

◆ 까시시한 풋밤송아리 같은 머
리를 쓰다듬었다.

◆ 씨가 드문 머리칼.

◆ 소나무 잎같이 깔깔한 머리카
락.

◆ 반나마 모드러져 없어진 머리
카락.

◆ 꼳꼳하게 일어서는 수세미 같
은 머리칼.

◆ 길고 검은 머리카락 속에 센 머
리카락이 희스희스 했다.

◆ 서늘한 바람이 희끗희끗한 짧
은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날렸다.

◆ 모자를 벗자 뽕뽕한 머리카락
이 부르르 하니 들고 일어났다.

◆ 짧게 깎은 머리카락이 밤송이
처럼 뽕뽕하게 일어났다.

◆ 몇 오리의 은빛 머리카락이 빛발
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 술잎처럼 뽕뽕이 일어선 머리.

◆ 검붉은 얼굴에 짧게 깎은 앞머
리가 이마 위에서 나실나실 날렸다.

◆ 고수머리카락은 풀어져 성난
멧돼지의 센털처럼 날날이 곤두섰

다.

◆ 노르께한 성긴 머리카락이 덮인 머리가죽이 알른알른 들여다보는 젓먹이 머리.

◆ 더부룩한 큰 머리.

◆ 머리털이 가물에 콩 나듯 몇 오리밖에 없는 대머리.

◆ 기신기신 내미는 대가리.

◆ 호박같이 생긴 대가리.

◆ 박박 깎은 빠죽한 대가리.

◆ 표주박 같은 대갈통.

◆ 박통처럼 생긴 반들반들한 대갈통.

◆ 뒷골이 주걱처럼 납죽하다.

◆ 불에 지진 듯한 노랑대가리.

◆ 가마가 반들반들한 머리.

◆ 구두술같이 까만 머리.

◆ 윤이 흐르는 머리.

◆ 하얀 서리가 내린 머리.

◆ 희스희스한 귀밑머리.

◆ 황금빛 같은 머리.

◆ 다불다불한 금발머리.

◆ 불암소꼬리 같은 노란 머리.

◆ 한 광주리인 듯한 술 많은 머리.

◆ 검불처럼 흩어진 머리.

◆ 소가 훑어놓은 것 같이 착 달라붙은 머리.

◆ 썩대강이처럼 마구 흐트러진 머리.

◆ 어깨 위에 날개를 펼친 듯 구름 같은 머리가 흩어진다.

◆ 땀에 젖어 더운 윤채가 흐르는 곱곱한 머리.

◆ 방울을 크게 만들어 지진 감스레 윤기나는 머리.

◆ 처녀의 머리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꽃잎처럼 깊이깊이 숙여졌다.

◆ 주인 마나님의 기름기 철철 흐르는 머리.

◆ 함박만한 대가리에 머리를 네모지게 해 얹은 여자.

◆ 감치르르한 단발머리.

◆ 비단처럼 물결치는 금빛 머리칼.

◆ 차분하고 반지레한 윤기가 도는 까맣고 술 많은 머리칼.

◆ 가을바람을 만난 버드나무처럼 이마 위에 마구 뒤엎킨 머리카락.

◆ 여학생의 다보룩한 검은 머리

채.

◆ 함함하게 빗어 내린 소담스러운 머리채.

◆ 등허리로 소담하게 물결쳐 내린 머리태.

◆ 치렁치렁 땅아 늘인 윤기 흐르는 새까만 머리태.

◆ 함함하고 윤택이 흐르는 머리태.

◆ 머리태가 대롱거린다.

◆ 가지런한 단발머리.

◆ 고슬고슬한 머리.

◆ 함치르르한 머리.

머리와 관련된 성구 속담 :

머리 없는 놈 땡기치레한다 — 실속 없이 걸치레만 하는 꼴을 비웃는 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는 몸소 나서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뜻.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 — 말은 시초부터 조리 있게 해야 한다는 뜻.

대가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

— 기본 되는 것만 처리하면 그것에 딸린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함께 처리된다는 뜻.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 몸 전체를 형상으로 강조하여 이르는 말.

머리가 가볍다 — 마음이 상쾌하여 기분이 가뜩하다.

머리가 무겁다 — 기분이 침울하거나 골머리가 멍하다.

머리를 풀다 — 상제가 된다.

머리를 깎다 — 형무소에 들어가 징역을 살거나 교화를 받는다.

머리를 엮다 — 처녀가 시집간다.

머리에 서리가 앉다 — 머리가 희끗희끗 세다.

4. 얼굴

얼굴의 여러 부위 이름 :

낯(얼굴) · 눈썹 · 눈 · 코 · 입 · 뺨 · 볼

보조개 — 옷을 때 양쪽 볼에 움푹하게 들어가는 자국. <옥희의 뺨에는 얽은 웃음이 떠오를 때마다 보

조개가 귀엽게 나타났다.> <가름한
얼굴은 복성스럽고도 윤기가 돌며
웃음을 띠고 말할 때에는 두 볼에
보조개가 지어졌다.>

얼굴 모양을 나타내는 말 :

곱다 · 아름답다 · 예쁘다 · 곱살하
다 · 곱살스럽다 · 이쁘장하다 · 아리
뺨다 · 이쁘다 · 예쁘장하다 · 반반하
다 · 미끈하다 · 쪼글쪼글하다 · 반주
그레하다 · 매끈하다 · 주글주글하다
· 환하다 · 두툼두툼하다 · 쭈글쭈글
하다 · 깨끗하다 · 우툼우툼하다 · 조
록조록하다 · 끼끗하다 · 조글조글하
다 · 번지레하다 · 할쑥하다 · 혈쑥하
다 · 할끔하다 · 혈끔하다 · 해말쑥하
다 · 나부대대하다 · 너부데데하다 ·
나부죽하다 · 너부죽하다 · 괴죄죄하
다 · 피죄죄하다 · 희멀쑥하다 · 복성
스럽다 · 해끄무레하다 · 해반주그레
하다

나뻗뻗하다 — 얼굴이 나부죽하
고 토실토실하다. <할아버지는 나뻗
뻗한 얼굴에 눈이 방울처럼 큰 손녀
딸을 한참이나 귀엽게 바라보셨다.>

얇은 얼굴 :

알금숨숨 · 알금살금 · 알금알금 ·
얇둑얇둑 · 얇박얇박 · 얇죽얇죽 · 얇
금숨숨 · 얇금설금 · 얇금얼금 · 얇둑
얇둑 · 얇먹얇먹 · 얇죽얇죽 · 얼멍얼
멍

얼굴의 색깔을 나타내는 말 :

발깡다 · 발그스름하다 · 발그레하
다 · 발그대대하다 · 볼그스름하다 ·
볼그레하다 · 볼그무레하다 · 볼그스
름하다 · 볼그레하다 · 볼그테데하다
· 벌그스름하다 · 벌그레하다 · 벌그
테데하다 · 누르통통하다 · 노랗다 ·
누렇다 · 가무스름하다 · 가미무트름
하다 · 가무죽죽하다 · 까무스름하다
· 거무스름하다 · 꺼무스름하다 · 까
미무트름하다 · 거미무트름하다 · 꺼
머무트름하다 · 가무잡잡하다 · 거무
접접하다 · 까무잡잡하다 · 꺼무접접
하다 · 거무죽죽하다 · 까무죽죽하다
· 꺼무죽죽하다 · 붉으락푸르락하다 ·
퍼러딩딩하다

얼굴과 관련된 말 :

낮가죽 · 낮바닥(낮바대기, 낮배기, 낮작) · 낮빛(낮색) · 얼굴바대기(얼굴작) · 얼굴빛 · 일색

용모 — 얼굴 모양.

미인 — 용모가 썩 아름다운 여자.
 <옥순이는 마을 처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미인이었다.>

미색 — 여자의 아리따운 용모.
 <진 씨의 미색을 나도 또한 다른 길로 들었으니 그러나 진녀의 집이 환란을 만나 궁녀가 되었다 하니 어찌 능히 여기 이르리오?>

절색 —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여자. <그 아이 점점 자라매 나이 십육 세에 당하매 월태화용이 세상에 빼어나서 백태 구비하니 천연한 절색이라.>

조개볼 — 조가비 모양 비슷하게 가운데가 도도룩하게 생긴 두 볼, 또는 보조개.

밤볼 — 살이 보기 좋게 찌서 입 속에 밤을 문 것처럼 볼록하게 된 볼.

메주볼 — 살찌서 축 늘어진 양쪽

볼. <그의 메주볼 진 아래턱이 어떻게 보면 좀 심술궂어 보이기도 했다.>

얼굴에 대한 표현 :

좋은 느낌을 주는 얼굴

◆ 동그스름한 얼굴.

◆ 둥글둥글한 얼굴.

◆ 쟁반같이 둥근 얼굴.

◆ 너부죽한 얼굴.

◆ 납작스름한 얼굴.

◆ 해납작하게 생긴 얼굴.

◆ 떡판처럼 넓직한 얼굴.

◆ 가름한 얼굴.

◆ 아래턱이 쪽 빠진 얼굴.

◆ 오이씨같이 가름한 얼굴.

◆ 믿음직한 얼굴들이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서 별보다 더 찬란한 꿈을 그리며……

◆ 꽃처럼 어여쁘던 너, 네가 간지도 어느새 스물여섯 해.

◆ 허리에 용천검을 비껴챘난대 얼굴이 천연히 이슬에 젖은 해당화 같은지라.

◆ 사람들이 배게 앉았다. 누구나

얼굴이 활짝 핀 해바라기 같은데 서로 자리를 내주며 앉으라고 권한다.

◆ 어찌면 그렇게 탄 사람 같으우. 얼굴이 달보다도 더 흰하게 그리고 꼭 다문 음전스러운 입, 반짝이는 눈, 내 정말 눈을 몇 번 씻고 보았소. 저게 정말 우리 정옥인가 해서……

◆ 송란이는 키가 현철하고 얼굴이 만월같이 풍만하게 생긴 처녀다.

◆ 그는 상그레 웃으면서 안방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굴은 돌아오는 달같이 탐스럽게 생겼다.

◆ 얼굴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갓 솟아오른 반달이라 할까, 얼굴빛은 으름달밤에 핀 박꽃이라 할까, 몸맵시는 물찬 제비라 할까, 그리고 입은 빨간 앵두를 물었다 할까.

◆ 나이 열 살이 되니 용모는 고운 옥 같고 새별 같으니……

◆ 빨래 함지를 무겁게 인 여인 중 그 하나가 옥자가 아닌가. 귀불까지 푹 눌러쓴 흰 수건 밑으로 껌질 벗긴 밤알처럼 윤택해 보이는 그의 얼굴!

◆ 금란이는 창혁이 앞에 멈춰 서

며 부르짖었다. 그는 여전히 씻은 팔 알처럼 굵다.

◆ 분결같이 곱던 얼굴, 검버섯이 돋았구나.

◆ 얼굴빛이 분을 바른 듯하고 동근 구슬 같으니……

◆ 후리후리한 키에 콧날이 서고 두 눈에 열기가 다래다래한 데다가 흰 달걀처럼 탁 트인 얼굴이 사내답다.

◆ 분꽃 같이 곱게 피고 죽순같이 흰칠한 이쁜이.

◆ 꽃으로 치면 봉오리 같은 얼굴.

◆ 피려는 꽃송이 같은 얼굴.

◆ 그림같이 아름다운 얼굴.

◆ 얼굴이 반주그레하다.

◆ 온후하고 인품 있게 생긴 등실한 얼굴.

◆ 볼깃볼깃하고 젊음이 넘치는 큼직한 얼굴.

◆ 서글서글한 눈매에 익살을 피고 호탕하게 웃고는 하던 그 싱싱한 얼굴이 떠올랐다.

◆ 좁 내민 듯한 넓은 이마에 날카롭게 일어난 콧날이며 큼직하면

서도 언제나 조용한 사색이 깃들어
있는 것 같은 눈을 가진 얼굴.

◆ 키폴이 훨씬 크고 실직한 사나
이인데 얼굴이 네모 번듯하고 눈썹
이 굽적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두
볼엔 구레나룻이 영채가 돌았다.

◆ 미목이 수려하고 얼굴이 둥그
렁고 검실검실한 젊은 남자.

◆ 장대한 키폴, 상큼한 콧날, 우
렁우렁한 목소리, 검붉은 얼굴……

◆ 너무죽한 얼굴에 빙그레 웃음
이 어린 것이라든가. 크고 몽툰한
코, 약간 열기가 오른 눈, 침착한 몸
가짐 하나하나에서 위엄이 넘쳐 다
가갈 수 없었다.

◆ 가름한 얼굴, 햇빛에 그슬린
검실검실한 피부, 정력에 찬 검은
눈…… 젊음과 정력이 한창 무르익
는 서른서너 살쯤 되는 사나이였다.

◆ 길쭉한 얼굴에 날찍하고 수정
같이 맑은 큰 눈이 어글어글하여 황
홀하기가 짝이 없다.

◆ 해당화같이 예쁜 얼굴.

◆ 배꽃같이 맑은 얼굴.

◆ 봄꽃처럼 싱싱한 얼굴.

◆ 이슬에 씻긴 듯 생생한 얼굴.

◆ 달같이 탐스럽게 생긴 얼굴.

◆ 군턱이 잡힌 복스러운 얼굴.

◆ 동글몽실한 얼굴.

◆ 사과처럼 동그란 얼굴.

◆ 하냥 보조개 꽤우며 웃음 담은
얼굴.

◆ 보름달처럼 피어나는 얼굴.

◆ 복숭아같이 붉고 애리에리한
얼굴.

◆ 활짝 핀 살구꽃같이 환한 얼굴.

◆ 홍조가 피어오르는 가름한 얼
굴.

◆ 이슬 머금은 월계꽃 같은 얼굴.

◆ 저녁노을빛에 곱게 물든 환한
얼굴.

◆ 솟아오르는 보름달 같은 얼굴.

◆ 보조개가 꽤일 듯 말 듯 한 얼
굴.

◆ 인형처럼 귀여운 얼굴,

◆ 빨갛게 홍조를 머금은 얼굴.

◆ 딸기 빛처럼 익은 볼.

◆ 사과알같이 붉은 두 볼.

◆ 예리디예린 볼.

◆ 장미꽃으로 만든 것 같은 두

볼.

◆ 야리한 볼.

◆ 주근깨가 다뭇다뭇한 오동통
한 볼.

◆ 처녀의 익은 능금 같은 볼록한
양 볼은 아직도 천진한 데가 있었다.

◆ 웃을 때마다 살짝 패우는 보조
개.

◆ 꽃같이 곱고 눈같이 정결한 아
리따운 여자.

◆ 맑은 빛이 넘쳐흐르는 얼굴.

◆ 아름다운 얼굴은 아침 이슬이
함함한 모란꽃을 떠올릴 만큼 청초
하였다.

◆ 제 나이치고는 성숙한 키, 가
름하나 햇빛에 끄슬려 탄력 있어 보
이는 얼굴, 선이 날카로운 콧날과 불
꽃처럼 번쩍이는 눈정기, 꼭 다물고
있는 입,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다.

◆ 그의 어여쁜 뺨은 더 한층 윤
기가 돌았고 이따금 빨간 입술을 뺨
면 두 볼 위에 보조개가 움썅거리며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 얼굴이 가름하고 키가 호리호
리하였으며 말수가 적었다. 속눈썹

이 길고 쌍꺼풀이 진 눈은 새별처럼
빛났다. 서근서근하고 인정이 있고
입을 싸쥐고 웃기를 잘한다.

◆ 처녀는 날씬한 몸맵시에 낚은
광목 적삼을 입었다. 뒤에는 외태머
리를 치렁치렁 드리웠다. 감실감실
한 얼굴, 길은 눈썹 아래 새까만 눈
동자가 빛을 내고 있었다.

◆ 동실한 얼굴, 머루알같이 까맣
고 오목한 눈이며 입은 앳되고 청신
한 인상을 준다. 칠칠하게 길게 땡아
드린 데다가 붉은 땡기를 물린 외가
닥머리태만이 숙성한 처녀임을 말
해준다.

◆ 얼굴이 달보다 더 환하다.

◆ 얼굴은 천연히 이슬에 젖은 해
당화 같더라.

◆ 문이 열리는 곳에 여인이 연꽃
봉오리마냥 나타나 하느적이면서
걸어 나왔다.

◆ 얼굴이 좀 둥그스름한데 살이
토실토실 올라서 탐스럽게 생김 처
녀였다.

◆ 동글납작한 얼굴 모습이 해사
하게 생겼다.

◆ 달 덩어리처럼 환한 얼굴.
 ◆ 하얗고 보동보동한 얼굴.
 ◆ 발그레한 볼에 오목이 패운 보조개, 새별같이 빛을 내뿜는 커다란 눈, 길지 않게 땅아 늘인 가랑머리는 귀가에 늘어졌고 앞이마와 관자놀이에는 보수수한 짧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 순진하고 귀여운 얼굴.
 ◆ 이름답고 행복에 빛나는 얼굴.
 ◆ 춘삼월에 활짝 핀 복숭아꽃처럼 방긋 웃는 얼굴.
 ◆ 하얗게 오동보동한 얼굴.
 ◆ 복성스러운 얼굴.

나쁜 느낌을 주는 얼굴

◆ 주걱상을 한 얼굴.
 ◆ 말상처럼 긴 얼굴.
 ◆ 웃굴이 빠죽한 얼굴.
 ◆ 하관이 빠른 얼굴.
 ◆ 마늘쪽같이 좁은 얼굴.
 ◆ 메마르고 강파른 얼굴.
 ◆ 칼갈한 얼굴.
 ◆ 놀란 여우상.
 ◆ 삶의 상.

◆ 고양이상.
 ◆ 썩은 콩 썩은 상.
 ◆ 낙태한 고양이상.
 ◆ 수캐 똥 누는 상.
 ◆ 양쪽 볼 위로는 화상을 입은 것이 마치 진땅에다 콩마당질을 한 것처럼 흉터가 패었다.

◆ 취사병은 탕자 껍질 같은 두툼 두툼한 얼굴에 벌써부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인다.

◆ 남혜는 이내 대답을 못하고 코가 덩실한 태식의 굴껍질처럼 우툴 두툴하고 길쭉한 얼굴만 바라보았다.

◆ 저희들끼리 소위라고 부르는, 얼굴이 돌밭에서 자란 감자같이 생긴 장교가 이렇게 말했다.

◆ 교무주임 윤성호가 불도그 같은 상관으로 간부교원들을 핵 둘러 보며 입을 열었다.

◆ “운 지 벌써 반년이나 되나? 그렇지 아냐.” 하고 말고기 설익은 것 같은 얼굴을 이화에게 가까이 갖다 대며 들여다본다.

◆ 그들은 모두 취해서 원숭이 볼

기작처럼 얼굴이 새빨개가지고는
춤추고 노래를 부르기에 정신이 없
었다.

◆ 이인수는 말 끝에 시뻘건 혀를
내밀며 탁수일을 본다. 그러는 것이
꼭 둥근 탈박에 주도 빛으로 그린
화상 같다.

◆ 소년공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음달에서 자란 풀처럼 얼굴에 핏기
가 없고 쿨룩쿨룩 잔기침을 한다.

◆ 개기름이 번지르르하여 핏발
이 울울한 눈을 흉악하게 굴리는 사
위의 꼴이 언뜻 눈앞에 떠올라서 그
는 발끝을 돌릴까 말까 하고 주저주
저하였다.

◆ 오가의 얼굴 꼴이 사람 같지
않고 귀신같았다.

◆ 오래지 않아 송장이 될 것 같
은 그의 얼굴은 추잡한 주름살과 함
께 광택도 탄력도 없어 보였다.

- ◆ 뺨과리 같은 낮판대기.
- ◆ 거무죽죽하고 우람진 얼굴.
- ◆ 썩은 콩 삶은 상.
- ◆ 저녁 굵은 시어미상.
- ◆ 벌레를 삼킨 듯 오만상을 지푸

렀다.

◆ 문어대가리처럼 시뻘게진 넙
죽한 얼굴.

◆ 설익은 바가지짜처럼 오무라
든 볼.

◆ 송장처럼 거뭇게 땀에 뜬 얼굴.

◆ 쥐상.

◆ 팽이상.

◆ 염소 얼굴.

◆ 승냥이 털빛같이 시뻘연 상판.

◆ 해골처럼 바삭 쪼그라진 얼굴.

◆ 광대뼈가 불거진 험상궂게 생
긴 얼굴.

◆ 설삶은 말대가리 같은 상판대
기.

◆ 얼굴은 언 무 빛처럼 푸르당당
하다.

◆ 심술이 드레드레 뭉친 두 볼.

◆ 볼이 넓고 입이 큰 그는 두꺼
비 같았다.

◆ 낮 짙은 하관이 빠르고 입이 뽀
족한 것이 족제비와 같았다.

◆ 이마가 툭 불거져 나오고 턱이
뭉근한 놈이 멀쩡한 눈으로 그를 흘
끗 쳐다보았다.

◆ 양바탕한 몸뚱이와 등실하게 두드러진 이마 밑에 음침하게 괜 눈 두덩이 속에서 노르끼레한 눈썹에 가린 가는 눈이 선의에 찬 것인지 살기 띤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야릇한 빛을 뿜고 있었다.

◆ 도끼눈에 입이 쪽 찢진 것이 험상궂게 생겼다.

◆ 수염투성이의 시꺼먼 낮쪽에, 돼지 눈과 주먹 코도 보기 흉한 사람이었다.

◆ 좀쌍한 생김새.

◆ 딱지딱지 주근깨가 박힌 말상 같은 얼굴.

◆ 비계덩이 같은 네모진 얼굴.

◆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군살이 쳐져 내린 볼.

◆ 유들유들 살찐 낮짱.

◆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

◆ 땃국이 흐르는 얼굴.

◆ 유자껍질마냥 여드름 자국이 승승한 얼굴.

◆ 장글맞게 생긴 얼굴.

부끄러운 얼굴

◆ 토마토처럼 새빨간 얼굴엔 부끄러움을 잔뜩 머금었다.

◆ 불붙은 낮을 두 손으로 막으며 주저앉는다.

◆ 얼굴에 모닥불을 뒤집어쓴 것 같다.

◆ 그러자 성실이는 갑자기 얼굴이 일년감 빛으로 새빨개지며 “몰라요” 하고 급히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다.

◆ 얼굴이 복숭아꽃같이 붉어졌다.

◆ 부끄러움에 젖은 두 볼은 마치 이슬에 젖은 한 떨기 해당화 같았다.

◆ 모닥불을 쓴 것 같이 얼굴이 화끈해 났다.

◆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다.

◆ 무안해서 얼굴이 홍시처럼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웃는 얼굴

◆ 얼굴에 기쁨이 설렌다.

◆ 환희와 낭만으로 가득 찬 얼굴.

◆ 얼굴에는 알릴 듯 말 듯 기쁨

이 지나갔다.

- ◆ 얼굴에는 금세 꽃물이 들었다.
- ◆ 얼굴이 해반주그레해졌다.
- ◆ 함박꽃 같은 웃음을 머금었다.
- ◆ 얼굴은 웃음 덩어리로 바뀌었다.

다.

- ◆ 느슨한 웃음이 피었다.
- ◆ 입술 위로 얇은 웃음을 띠었다.
- ◆ 얼굴엔 꿀 같은 웃음이 찰찰 흘러넘쳤다.

◆ 귀인상스럽게 눈을 활기적거리며 반가운 웃음을 한가득 피웠다.

◆ 얼굴에는 마치 금방 피는 진달래꽃 같은 웃음이 떠올랐다.

◆ 슬픔에 잠겼던 얼굴을 웃음의 햇살로 따스하게 내비친다.

◆ 감실감실한 얼굴에 방실방실 웃음을 띠었다.

◆ 내리감은 눈엔 익살스러운 웃음이 흘렀다.

◆ 그의 얼굴 전체가 웃음꽃으로 덮여 있었다. 눈귀의 잔주름마저 다 리미로 지워버린 듯 가뭇없이 사라졌다.

- ◆ 그 반죽 좋은 태도에 노인은

너털웃음이 치미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놀란 얼굴

◆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아연실색하여 한동안 멍하니 바라본다.

◆ 별안간 입을 딱 벌린 채 통방울처럼 눈을 홑뜨고 쳐다본다.

◆ 의혹과 놀라움이 반반으로 된 얼굴.

겁에 질린 얼굴

◆ 백지장같이 새하얗진 얼굴.

◆ 희다 못해 파리한 얼굴.

◆ 새파랗게 질린 얼굴.

◆ 새파랗다 못해 새까매진 얼굴.

◆ 얼굴이 잿빛처럼 죽다.

◆ 해쓷한 얼굴.

◆ 솟등걸같이 까맣게 질린 얼굴.

◆ 파랗게 질린 백랍 같은 얼굴.

◆ 군사가 모두 황겁하여 얼굴이 잿빛처럼 되었으나 공은 의젓이 앉아 움직이지 않고 신색이 태연하였다.

◆ 형보의 이 말에 순동이 얼굴빛은 새파랗게 질려 앉은 자리에서 화석처럼 되어버린다.

◆ 그는 얼굴빛이 새파랗게 되다 못해 새까맣게 죽었다.

◆ 어제까지 있던 서슬도 온데간데없이 종잇장 같은 얼굴에 수심만 어렸다.

◆ 대리석같이 하얗게 되었다.

◆ 얼굴빛이 나뭇잎같이 새파래졌다.

◆ 송장처럼 퍼렇게 질렀다.

성난 얼굴

◆ 얼굴에 서늘한 기운이 돈다.

◆ 범의 기상을 한 얼굴.

◆ 살기 띤 얼굴.

◆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다.

◆ 삼손이가 이렇게 야유하자 성환이는 얼굴이 더욱 수수밥 빛이 되어 입술을 푸들푸들 떨었다.

◆ 낮빛이 벼들잎처럼 새파랗게 된 명준이도 드디어 분이 터졌다.

◆ 땡땡하게 켠긴 얼굴.

◆ 늘 상글하니 웃음을 담고 다니

던 영실이의 얼굴에는 새침한 빛이 떠올랐다.

◆ 경희는 피가 흐를 것 같은 얼굴로 문을 열고 나섰다.

◆ 그의 이마에선 쥐가 펄떡펄떡 뛰었다.

◆ 얼음처럼 냉랭한 표정을 짓고 태연히 앉아 마주 바라본다.

◆ 눈살이 찌푸러지고 얼굴의 근육이 모두 꿈틀꿈틀 가로 일어섰다.

◆ 관자놀이에 튀어 오른 핏줄기가 세계 폴떡폴떡 뚫다.

◆ 영감은 분기가 확 치밀어 올라 낮색은 새파랗게 질리고 눈에는 핏발이 일어서고 이마의 퍼런 힘줄은 푸들푸들 뛰었고 설핀 수염은 바르르 떨렸다.

◆ 그의 얼굴빛은 흐렸고 두 눈은 불을 뿜는 것 같았고 지팡이를 짚은 두 손은 후들후들 떨렸다.

◆ 상관을 길게 늘어뜨리더니 호통을 쳤다.

◆ 볼이 잔뜩 부어서.....

◆ 얼굴이 수수떡처럼 별게져서 황소 숨만 씨근씨근 쉬었다.

초췌한 얼굴

- ◆ 누룩같이 누렇게 뜬 얼굴.
- ◆ 누렇게 들떠서 노랑꽃이 핀 것 같은 얼굴.
- ◆ 누르통통한 얼굴.
- ◆ 백지장같이 해쓱해진 얼굴.
- ◆ 그는 햇빛을 못 보고 살았기 때문에 마치 그늘에서 핀 꽃처럼 얼굴에는 화색이 없고 몸이 수척하였다.
- ◆ 그 검고 억세던 얼굴이 한풀 삶겼다 꺼낸 옷가지처럼 희멀개졌다.
- ◆ 그는 피로와 영양부족으로 얼굴에 노랑꽃이 피었다.
- ◆ 돌아온 여섯 사람들은 얼굴이 오이꽃처럼 노래졌고 기운이 풀렸다.
- ◆ 예쁘다고 평판이 높던 그 여자가 오랜 병에 그만 시들은 호박 꽃이 되었다.
- ◆ 벌써 30이 가까운 그는 아편쟁이 얼굴같이 누렇게 들뜬 데다가 이마는 벗어지고 머리는 빠져서 가르

마가 신작로처럼 정수리를 타고 나갔다.

- ◆ 얼굴빛은 누렇게 들떠서 황달병에 걸린 것 같다.
 - ◆ 메마르고 파리한 얼굴.
 - ◆ 밀랍마냥 창백한 얼굴.
 - ◆ 부황이 든 누런 얼굴.
 - ◆ 부잇한 얼굴.
 - ◆ 파리하고 까칠한 얼굴.
 - ◆ 자작나무 껍질같이 창백한 얼굴.
 - ◆ 부서부서한 누런 얼굴.
 - ◆ 파리하고 해쓱한 얼굴.
 - ◆ 병색을 띤 창백한 얼굴은 부서부서 부었으나 그래도 귀인성스럽고 더할 나위 없이 침착해 보였다.
- 찌푸린 얼굴
- ◆ 오만상을 찌푸리다.
 - ◆ 울상을 한 얼굴.
 - ◆ 시무룩해진 얼굴.
 - ◆ 잔뜩 찌푸린 우거지상.
 - ◆ 그가 뿔 뺨 소상이 되어 씩씩거리고 있을 때다.
 - ◆ 꼭 잠투정하는 어린애상이로

군. 그래 왜 좀 업구 엉치를 토닥토닥 못 두드려 줄까.

◆ 처녀의 얼굴에는 대뜸 어두운 구름이 비끼었다.

◆ 마치 바람 앞에 떨리는 한 송이 꽃과도 같이 애연한 표정.

◆ 온유하고 가련한 모습.

◆ 종일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석연치 못한 낯빛을 지었다.

◆ 깊은 걱정의 빛이 어린 진중한 얼굴.

◆ 창백한 얼굴은 안개가 낀 듯이 흐려졌다.

◆ 누구나 똑같이 깊은 생각에 잠기여 얼굴빛이 납덩이처럼 보였다.

◆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낙심천만해 하였다.

◆ 티 없이 맑게 웃던 아내의 얼굴에 느닷없이 그늘이 비졌다.

엷은 얼굴

◆ 그의 넓적한 얼굴에는 엷은 구멍이 벌집처럼 송송 뚫렸다.

◆ 콩 멍석 같다.

◆ 콩마당에 얹어진 것 같다.

◆ 비온 땅에 징 박은 신자국 같다.

◆ 천병만마가 싸운 고전장처럼 엷었다.

◆ 우박 맞은 소똥 같다.

◆ 알굴알굴 엷은 얼굴.

◆ 문둥병을 앓은 것 같이 온 낮이 다닥다닥 엷은 사람.

◆ 진땀에다 콩마당질을 한 것 같다.

얼굴색에 대한 표현

◆ 홍당무같이 빨개진 얼굴.

◆ 얼굴은 빨갭게 단풍같이 물들었다.

◆ 붉게 상기된 얼굴.

◆ 익은 고추처럼 새빨개진 얼굴.

◆ 얼굴빛이 익은 파리같이 새빨개지다.

◆ 순임이는 부끄럼을 타는 듯 홍조를 띤 얼굴로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 얼굴은 익은 딸기 빛 같다.

◆ 능금알 같은 얼굴에 웃음을 띠다.

- ◆ 주홍빛으로 상혈된 얼굴.
- ◆ 해말썽한 얼굴.
- ◆ 떡장이 된 얼굴.
- ◆ 가무잡잡한 얼굴.
- ◆ 햇빛에 그슬린 구릿빛 같은 얼굴.
- ◆ 철색 얼굴에 상냥한 웃음을 띤 청년.
- ◆ 배추 줄기와 같이 해말끔한 얼굴.
- ◆ 그는 편지를 뜯어보고 별안간 얼굴에 다홍물을 끼었다.
- ◆ 그의 얼굴은 연시감처럼 익고 땀이 나서 적삼 옷을 흠뻑 적셨다.
- ◆ 급히 달려온 선희의 얼굴은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다.
- ◆ 명진이는 얼굴이 수수떡같이 빨개져서 씨근씨근 황소 숨만 쉬고 있다.
- ◆ 옥희는 어느덧 얼굴이 새빨갭게 불꾸레미처럼 타올랐다.
- ◆ 사원들이 둘레에서 공격을 했다. 종수는 얼굴이 핏빛처럼 달아올랐다.
- ◆ 배춧속같이 핏기 없는 얼굴에

- 도 푸른빛이 비쳐 생기를 띠었다.
- ◆ 저 하늘에 언 달빛같이 내 얼굴은 언제든지 새파랗게 질리고 만다.
- ◆ 새파랗던 석준이 낮에 붉은빛 몇 줄기.
- ◆ 앵뎃빛 뺨.
- ◆ 구릿빛 얼굴.
- ◆ 우웃빛 얼굴.
- ◆ 벌거우리한 얼굴.
- ◆ 불깃불깃한 혈색 좋은 얼굴.
- ◆ 김북게 탄 얼굴.
- ◆ 해풍에 그슬린 거뭇한 얼굴.
- 그밖에
- ◆ 뺨뺨한 얼굴.
- ◆ 부리부리한 눈과 쑥 불거져 나온 광대뼈로 하여 몹시 과격해 보이는 젊은 대장.
- ◆ 얼굴은 화독같이 이글거린다.
- ◆ 얼굴에 잔주름이 뒤덮인 노인.
- ◆ 잔주름이 건너간 얼굴.
- ◆ 열기설기 주름 잡힌 얼굴.
- ◆ 바가지속같이 주글주글한 불.
- ◆ 열기설기 거미줄처럼 덮인 잔

주름.

◆ 눈에는 동심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으나 이마의 주름살들이며 홀쭉한 볼에는 늙은이의 암담한 한숨이 서려 있었다.

◆ 깊고 차가운 주름살이 엇비스듬히 이마를 파고 지나갔다.

◆ 주름살 잡힌 얼굴에 웃음이 어리자 그 주글주글한 얼굴은 마치 호두알처럼 되었다.

◆ 복숭아털이 보시시한 얼굴.

◆ 땀에 반주그레해진 얼굴.

◆ 이마엔 깨알 같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 검버섯이 까맣게 덮인 얼굴.

◆ 아래위턱이 잔술발 같은 얼굴.

얼굴과 관련된 성구 속담 :

제 얼굴 더러운 줄 모르고 거울만 나무란다 — 제 부족은 생각하지 않고 애꿎은 남만 책망한다는 뜻.

얼굴 가죽이 두껍다 — 부끄러운 것을 모르도록 염치가 없다.

얼굴보다 코가 더 크다(배보다 배꼽이 크다) — 딸린 것이 주되는 것

보다 더 크거나 많다는 뜻.

얼굴을 내놓다 — 어디에 참석한다.

얼굴을 못 들다 — 창피하거나 부끄러워 남을 뿔뿔이 대하지 못한다.

얼굴이 간지럽다 — 양심에 가책되어 말하거나 듣기에 거부함을 이르는 말.

얼굴이 뜨뜻하다 — 부끄럽거나 무안하거나 하여 남을 대할 낮이 없다.

얼굴에 똥칠한다 — 크게 망신될 일을 한다.

낮이 난다 — 생색이 난다, 면목이 선다.

낮이 뿔뿔하다 — 남에게 부끄러운 점이 없다.

드는 돌이 있어야 낮이 붉다 — 일정하게 들이는 노력이나 밀천이 있어야 그것에 맞는 표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

웃는 낮에 침 뱉으랴 — 좋게 대하는 사람에게는 낮게 대할 수 없다는 뜻.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전쟁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羽仁五郎(하니 고로오) 일본 역사가이자 평론가
《네 마음이 전쟁을 부른다》 책에서.

파시즘이란 이름의 과대광고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은 겉모양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나치스란 독일 국가사회주의노동당의 준말이다. 노동자에게는 마치 꿈같은 이름이 아닌가? 그러나 그 내용은 참혹 바로 그것이다. 독점자 본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조직이거나 또는 유대인 학살하는 조직이었다. 나치스라 하면 그저 히틀러 같은 ‘이상한’ 지도자가 일으킨 이상한 현상이라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히틀러의 뒤에는 자본가가 있었다. 히틀러는 그 대변자일 따름이었다. 히틀러가 아니더라도 파시즘을 부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았던 것이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미친 사람 때문이라고만 생각

하고 있다가는 또 다른 미친 사람이 생기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란 것도 나치스와 마찬가지로 그 겉모양과 속 알맹이는 달랐다. 인류는 모두 형제다. 다시 말해 팔굉일우(八紘一宇)라 하여 외양은 평화주의 같은 것을 국가의 이념이라고 노래 불렀다. 그러나 실제로 한 짓은 중국인 학살과 조선인 박해였으며 침략이었다.

이 같은 과대광고가 그 모양 그대로 지금의 일본에 부활하고 있다. 지금 일본 재(유)민(주)당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민주로운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농담으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미·일 안보조약이란 것도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고 있다. 안전이다 보장이냐 하는 외양으로 가장하

고 있으나 그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군사·전쟁’의 조약이 아닌가? 외양과 내용이 다른, 이것이 파시즘의 뻘한 양상이다. 미·일 군사조약을 안보조약이라고 말만 바꾸어 놓은 것 뿐이다. 이러니 ‘침략’이 ‘진출’로 바뀌는 것 정도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쉽다.

이 같은 현상은 벌써 사회 방방곡곡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단(公團)·공사(公司)라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세금으로 주택을 지어 놓고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또 집세를 거둔다. 본래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파시즘이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삼사 원이면 돼요” 하고 유혹해 놓고 그 말을 믿고 들어가 보면, 예쁜 아가씨란 것은 사실 할망구이고 나올 때 내는 돈은 3만 원이 된다. 불평을 하면 덤벼들어 폭력을 쓰는 바(술집)가 유행하고 있다는데 파시즘이란 이 폭력 바와 마찬가지로 짓을 정치로 하는 것이다.

자위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해놓고 어느새 국민을 탄압하는 군대로 만들어버린다. 파방법(破防法)이란 것도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미·일 군사체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말하자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률이다. 누구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침략’이었던 것을 ‘진출’이라고 교과서에 신는다. 이를 파시즘이라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헌법은 귀찮다

나치스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 더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해 놓고, 믿고 있는 상대방을 침략했다. 이와 같은 짓을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하고 있다. 이번에도 또 “진출입니다”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다. 파시즘은 그 말고는 아무 목적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의 평화헌

법(平和憲法)을 개정하자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나쁜 사태가 벌써 지금의 평화헌법으로는 감쌀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다. 벌써 헌법이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다.

일반 사람들은 헌법 내용을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지금의 헌법은 우리들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헌법을 지키고 있다가는 공공연히 군수산업을 할 수 없으며, 전쟁에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헌법은 잘못되어 있어요” 하고 외양과 내용이 다른, 상투스러운 이론을 우리들에게 주입시키려 한다.

지금의 헌법은 미국에 강요된 것이라든지, 국제 정세에 대응할 수 없다든지 해서 어용 평론가들을 시켜 세론을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입은 국민은 새로운 헌법에 “전쟁은 하지 않

는다”고 하는 항목을 넣은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지 강요고 뭐고 없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요컨대 개헌(改憲)은 오직 전쟁을 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그럴 듯한 다른 표현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한여름의 포(4) 아웃 사건

지난여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야구는 쓰리(3) 아웃으로 체인지(공수 교대)인데 고등학교 야구에서 포(4) 아웃이 있었다는 것이다. 벌써 쓰리 아웃이었는데도 체인지(공수 교대)가 안 되고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때 아마도 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코어를 매기고 있었을 것이다. ‘이상한데’ 하고 눈치챈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큰 소리로 게임 진행을 멈출 정도로 자신이 없었

다. 스코어보드라 하는 틀릴 리 없는 ‘기계’가 틀린 아웃 수를 나타낸 것도 모든 이의 자신을 흔들리게 했다. 자신 상실과 기계 신앙의 시대.

열기 속에 게임은 좋은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라운드 선수들은 딴 생각 없이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구장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균중의 분위기는 외곶이었다. 심판이 “아차!” 하고 느꼈을 때는 이미 다음 타자가 공을 치고 있었다. 분위기와 시류(時流)에 밀려버리는 위기.

네트 뒤 관중석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선수나 심판에게 전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라운드와 스탠드는 담벼락으로 가로막혀 그 거리는 멀다. 관중이 문자 그대로 외야석에 있어 진행 중인 사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쉬움. 이른바 소외된 상황.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고 모두가 알면서도 사태는 앞으로 나아가버리는 상황. 이런 위험스러운 사태는 비단 고시엔(甲子園) 대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민중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으면 침묵은 언제까지나 별거숭이로 있다. 야구가 아닌 다른 일일 경우 포 아웃이 되어버린 뒤에는 이미 때

가 늦다. (1982년 8월 14일자)

파시즘이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드는 것도 이와 같다. 막연하게 기계나, 심판이나, 정부가 하는 말을 믿고 있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다. 또는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모두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대세를 따라가고 만다. 이 같은 심리 상황이 조작되어 있다. 이런 대중 심리를 배경으로 잔혹한 사건이 관동대지진(關東大地震) 때 일어났던 것이다.

집단 히스테리가 조작되면 벌어지는 일

다이쇼(大正) 12년 동경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뒤덮은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그 커다란 혼란함 속에서 일본인은 수천수만 되는 조선인을 많이 죽였다. 그 짓을 시킨 것은 정부였다.

정부는 지진의 혼란에서 혁명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대중의 의식을 혁명 쪽이 아닌 학살 쪽으로 끌어냈다. 인플레이의 폭발을 전쟁 쪽으로 몰고 가던 수법과 같은 수법이었다.

원래 지진이란 자연재해이니 한 집안의 재산이나 아버지를 잃어도 그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러나 사람들 마음에는 저절로 처치 곤란한 분노가 있다. 이 분노로 불타는 마음에 대고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탓이다” 말해준다. 그러면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서는 속 시원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심리는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린다.

그때 정부는 “이렇게 된 것은 조선인 때문이다” 하는 뜬소문을 퍼뜨렸다.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따위 나쁜 선전을 했다. 대중은 이 나쁜 선전을 쉽게 믿어버리고 아무 죄 없는 조선인을 몇 만 명인가 학살했다. 나치스가 유대인에게 한 것

을 일본도 했다.

이는 파시즘의 상투 수단인데 이런 선동에 간단하게 말려들어 가버리는 대중심리도 문제다.

대중심리라고 해도 이는 삼류(三流)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본능’은 결코 아니다. 문제는 죄 없는 사람에게 때로 습격하는 사람의 마음, 나쁜 선전을 스스로 한 번쯤 의심해 보지도 않고 쉽게 믿어버리는 마음이다. 자기가 하는 짓의 잔혹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대량학살 집단에 참가해 버리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이런 마음은 사람 자신의 마음이 아니고 이미 사람을 관리하려고 하는 지배자가 불어넣은 마음인 것이다.

모두 같은 일만 하고 있으면 틀림없나

더구나 중요한 점은 조선인 대학살이 관동대지진이라는 특별한 형편에서 나타난 특수 사건이 아니고,

이런 일은 다른 형태로 지금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살이나 공황 같은 한 가지 극단의 집단 히스테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자기도 살아가고자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따라 자기도 하고 있으면 틀림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자면 자기의 자립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파시즘에게 이용당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더 어마어마하고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기가 “생각하라”고 지시받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대다. 화장지나 세제가 품절이다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쯤 공황이 일어나는 시대다.

이 같은 일은 모두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잃었는가, 얼마나 나쁜 선전을 믿기 쉬운 마음으로 조작되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자립한 마음이 세제가 조금 없다고 해서 것처럼 소동을 피

우지는 않을 것이다.

마음이 대량 학살이나 공황을, 잘 훈련된 개가 “물어라” 하면 바로 물어뜯는 것처럼 조종되어 있는데 그것은 파시즘이 의도하는 대로 이용되어버리는 구조다.

최근 사람 심리의 관리, 조종이 얼마나 심해졌는지는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믿는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모두가 그렇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파시즘의 기억력과 언어 장애

“파시즘은 짧은 기억과 기다란 혀를 가졌다”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지금의 일본 정부에 딱 들어맞는 말일 것이다. 짧은 기억이란 지난날 잔혹한 행동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뜻이고, 기다란 혀를 갖는다는 뜻은 말재주도 좋게 국민들을 속여 간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과서 검정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에 소련 비행기가 일본에 다가온 횡수를 방위청이 실제보다 늘어 발표한 일도 있다.

말하자면 한편에서는 교육과 욕망 도발로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버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군비를 늘리는 데 필요한 세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란 소설에서는 정부가 자기 나라에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는, 국민들에게 적이 그랬다고 선전하여 언제나 적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게 하여 국민을 관리,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당장 일본에서 그 같은 일이 저질러져도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지나 않을지? 지금 자민당 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 그다지 반항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거의 가나쁜 선전이라 해도 좋을 소련의 위협을 모두가 진실인 것처럼 믿기 시작하고, 그래

서 군비 증강은 필요하겠구나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끔 조작되어 있다.

5백만 유테인을 5백만 독일인과 바꾼다

파시즘의 대표 선수로 꼽히는 나치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파쇼 같은 탄압이 ‘아우슈비츠’이다. 아우슈비츠의 핵심은 인간성 부정이다. 말하자면 사람을 사람으로 다루지 않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이면에는 경제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아우슈비츠의 ‘이론’은 독일인은 사람이요, 유테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테인은 박해해도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테인을 박해하면서 독일은 구제된다고 생각했다. 이 히틀러의 생각에 속아 넘어간 독일인은 모두가 유테인을 박해하면 자기들은 생활이 넉넉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까닭은 히틀러가 나타나기 전에 독일은 실업자가 5백만이었는데, 히틀러는 유테인 5백만을 학살했다. 그래서 실업자는 없어졌다. 엉터리 이야기라고 생각되겠으나,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전국 여러 곳에 있는 유테인 상점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상점을 실직한 독일인에게 주었다. 이 경제 요인을 배경으로 아우슈비츠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아우슈비츠가 다시 나타날 위험성, 다시 말해 아우슈비츠를 성립시킬 조건, 또는 일본 군국주의나 파시즘을 성립시킬 조건은 지금 우리들의 사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요즘은 전쟁 전과 똑같아 경제는 독점자본이 있어 이윤추구에 열중하고 있으며, 정치는 천황도 있고 교육의 국가 통제도 있다. 경찰은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있으며 파괴방지법도 있다. 이 파방법은 전쟁 전의 치안유지법과 같이 언제 우리들에게 적용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언제나, 또다시 군국주의가 되살아날 수 있는 조건은 이 사회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갖춰있는 셈이다.

2차대전 직전에 독일은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히틀러는 ‘바이마르 헌법’을 폐지했다. 지금의 일본 헌법을 개정(개악) 하자는 의론은 히틀러가 한 짓과 똑같다.

일본 헌법 개악론도 역시 히틀러와 같은 곳까지 갈 것이다. 지금 일본은 매우 큰 위기에 놓여 있다. 그 때문에 일본 헌법의 ‘인민 주권’이란 것은 잠시 멈추고 모든 권력을 지도자에 맡겨버리는 지경까지 갈 것이다. 파시즘 특유의 영웅을 바라는 것, 그 누군가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는 열망, 이런 것이 실지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다. 야구선수나 스타에 대한 열광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훈련은 되어 있다. 다나카 가꾸에이(田中角榮)도 영웅대망론(英雄待望論) 같은 연설을 한바탕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치스와 일본 군국주의를 막지

못한 철학의 무력함

지금까지 들어온 전쟁 조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이다.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옥도 좋다는 생태가 독점자본의 본질이다. 지금 자동차나 조선(造船)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까닭으로 군수생산을 시작했다. 독점자본에게는 일본 방위력이 어떠한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지 따위는 아주 관심 밖이다. 오직 이윤추구만이 그들의 목적이다.

독점자본과 정부와 군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결과로 나치스나 일본 국군주의가 생겨난다는 것이 정해진 역사다. 그러나 이런 사태에 맞서 싸운다는 데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도 포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칸트, 헤겔 그밖에 서양 철학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서는 히틀러를 막아내지 못했다.

그건 너무 지나친 비약론이 아닌가, 또는 결과론이 아닌가 하는 비평

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우리가 양심 있게 생각해 봐도, 보기를 들면 베토벤의 『제9심포니』는 확실히 훌륭한 음악인데 그 같은 훌륭한 음악을 태어나게 한 독일인이 어찌해서 저 사람답지 않은 히틀러에 저항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제9심포니』 또는 세계 문학 최고봉인 괴테의 『파우스트』를 듣거나 읽거나 하고 있다면 나치스에 모두가 반대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다. 오히려 히틀러가 『제9심포니』를 연주하도록 하면 모두가 즐겁게 그것을 듣고 있었다. 수용소 소장도 바흐를 좋아했다. 한편에서는 『파우스트』를 읽고 매우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한편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히틀러를 지지했다는 사실이 있다.

독일 국내에서는 히틀러의 사람 무시에 대해 저항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나 너무 적었으며, 나치스에 대항해 독일 인도주의자가 투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여기에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해서 19세기까지 있던 철학이나 사상이 모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전쟁의 조건은 모조리 갖춘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진심으로 추구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파시즘도 전쟁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베토벤 같은 인류애, 괴테 같은 평화주의가 충만한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세상이니까…….

정치는 내일 날씨가 다르다

내 철학의 스승인 크로체(Croce)는 “정치 현상에 대한 우리들의 정치 판단은 날씨 판단과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날씨 판단은 말하자면, 내일 흐릴 것인지 맑을 것인지는 벌써 결정되어 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영화 따위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상학의 현상은 있

는 그대로 볼 때 변함없는 사실로, 우리들의 뜻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정치 현상은 우리 뜻에 따라 밝게도 어둡게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크로체는 말한다.

이 이야기를 전쟁 문제에 적용시킨다면 전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세상이 전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일본이 또다시 군국주의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문제를 미국 날씨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꼴로 보아서 안 된다. 만약 마르크스주의가 ‘결정론’이라면 마르크스주의는 전쟁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크로체는 “정치 현상은 기상학의 현상과 달라 그것은 우리들의 뜻이 어떤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마음이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툰드라 - 북극권

홍석화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회원
 지은책으로 《한국의 토종101가지》, 《한국의 토종기행》,
 《토종문화와 모듬살이》, 《청산에 살어리랏다》가 있다.

제3절 네네츠의 생활

1. 네네츠 패러독스

(Nenets paradox)

네네츠 패러독스는 이누이트 패러독스(Inuit paradox)라고도 합니다. 이누이트(에스키모)들에게 심장병 사망률이 5%에 그치는데 대면, 서양인들은 40%에 이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 명쾌한 논거를 내놓은 게 바로 1971년 덴마크 의사 외른 다이어베르그(Hans Olaf Bang · Jorn Dyebverg) 그밖에 세 사람이 발표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먹어 심장병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논문이었지요. 그 뒤

로 나온 약 1만 4천여 개가 넘는 논문들은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박동(부정맥), 혈관 안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는 따위 ‘오메가-3’에 관해 더 많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메가-3은 요즘도, 등 푸른 생선의 기름에 많아서 일상으로 적극 권장되는 식품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대표로 3가지 지방산이 DHA, EPA, AVA임이 밝혀지게 되었지요. 그중 DHA라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건 바로 온 세상과 우주의 근원인 빛. 뇌신경, 눈의 망막(50%), 심장박동, 신경 조직들 사이의 결합부에 빛을 전달·유지하고 조절·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생겨난 용어로 “과일이나

채소 없이 많은 지방을 먹어도 심장병이 덜 생기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이누이트 패러독스(Inuit paradox)라 하게 된 거죠. 네네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누이트들이 고래, 바다사자, 생선을 늘 삼시 세끼 먹듯이 네네츠들도 순록, 백어 같은 불포화 지방산(오메가-3)이 많이 들어있는 고기를 과일과 채소 대신에 즐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네츠 패러독스 = 이누이트 패러독스인 셈입니다.

시베리아 사하족의 가장 북쪽 근처거지인 오미야콘(-70°C까지 내려가는 가장 추운 지역) 사람들의 주식은 순록과 말고기라는데, 채소나 곡식 먹는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고허니 순록과 말 젖에 적은 양이지만 여러 유효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들어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적포도주’에 얽혀있는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란 용어도 이에 견주어 살펴볼만 하지요. 이는 1990

년 『헬스(Health)』 지 기자 에드워드(Edward Dolnick) 씨가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1991년 미국 CBS TV 『60회의록(60minutes)』이란 프로그램에서 불란서 사람들이, 미국인보다 훨씬 더 기름진 식사를 즐기고 와인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은데 대면, 심장병 사망률이 1/3 수준인 원인을 추적해 보는 내용이었죠. 결론은 적포도주였습니다. ‘폴리페놀’이란 물질이 주목받았지요. 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폴리페놀보다 ‘엽산’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불란서 사람들은 알코올로 때문에 생긴 질병과 사고로 죽는 확률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다는 조사·통계도 나왔습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는 그 신빙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추세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네네츠 패러독스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츠 얘기가 시뻘건 생피를 즐겨 먹는 모습뿐 아니라, 생간, ‘삶은 뼈의 골수’를 비롯하여 살코기 말고도 여러 내장 부위를 알맞

은 조리법으로 늘 먹으면서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한다는 겁니다.

또, 한 철에만 나는 귀한 열매인 클라우드베리(cloud berries 야생 딸기류), 크랜베리(cran berries 덩굴 월귤류) 들도 놓치지 않고 먹어 영양의 균형이 이뤄지게 합니다. 그러하여 심장병은 물론 호흡기, 폐를 비롯한 여러 성인병·암 발생률이 적은 네네츠 패러독스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지요.

2. 순록 털옷과 오리털 파카

네네츠인들은 전통으로 순록(가죽+ 털)옷을 입는데, 털을 속으로 집어넣는 경우 이를 말리차(Malitsa)라 하고, 털이 바깥으로 나오게 만든 걸 구스(Gus)라 하는데 보통 순록 4마리야 1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구스’를 더 추울 때 입기 마련이고, 밖에서 밤을 지새울 때는 이 두 종류의 옷을 함께 겹쳐 입기도

하는데 약 -50° 이하까지도 견딜 수 있다고 하니 놀랍지요?

최근 들어 석유·가스 노동자들이 외지(또는 외국)에서 많이 이주해 왔는데, 이들 외지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요즘 만든 오리털 파카보다 이 네네츠 순록 털옷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이 파카(parka)란 말 자체가 —우린 조금도 그 연원을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네츠인들의 말입니다. 전 세계 통용어가 돼버린 단 세 가지 단어가 네네츠, 옹가나산(큰 범위의 네네츠에 들어오기도 하는 이웃 원주민), 그리고 파카라고 하네요……. 오리털 자체야 순록 털에 못지않은 방한·방습 능력이 있겠지만, 오리털 파카는 그 오리털을 감싼 표면의 인조 옷감, 이것이 순록 가죽에는 도저히 못 따라오는 ‘문명의 옷감’ 아니겠습니까.

볼펜이나 만년필조차 푹푹 얼어버리는 혹한에서 단 하나뿐인 필기 도구가 자연소재(흑연)인 연필일 수 밖에 없듯이, 이 지대에 50만 년 동

안 적응된 동물인 순록(가죽+ 털)옷
일 수밖에요. 아마도 우주선에서 우
주인들이 입는 우주복을 이 북극권
에 맞추어 쓴다 해도, 순록 털옷을
쫓아올 수 있을까요?

밤이 오자 천막집에서 잠들을 자게
됐습니다. 동토지대라 그런지 담요를
몇 장씩 겹쳐 깔고 스티로폼을 그 밑에
받쳤는데도 찬 기운을 막을 길이 없었
지요. 탐사길 오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몸인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벤 족 여대생 뽀까는 <곰 가
죽 모피(Fur)> 한 장을 깔고 이내 단잠
에 빠져들었지요. 이어서 에벤 족 아줌
마가 우리에게 건네준 <순록 모피>도
그런 마력을 예외 없이 발휘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란 참으로 위대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잠자리에 들었지요.

『순록치기가 본 조선 고구려 몽
골』의 저자 주채혁 교수가 러시아
사하공화국 에벤 족 순록 유목민 답
사를 갔다 온 뒤 술회한 글입니다.

3. 피

피는 ‘생명’의 상징이지요. 현대
거꾸로 폭력과 공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강건함과 열정을 대변하
기도 하고요. 피 자체의 주성분이
‘철’이기 때문에 “철혈 같은 ~인간,
~재상(宰相)”이란 표현도 흔히 쓰
곤 하지요.

피는 동물의 몸 속에 있는 것이기
에,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정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곧 무섭다는
정서 반응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 색깔이 붉은색이기에 심지어 영
화·만화·게임 따위를 ‘검열’할 때
에, ‘잔혹한 묘사’란 법의 잣대로 그
색깔을 바꾸도록 하기도 하구요.

『최후의 툰드라』에서 가장 인
상 깊은 장면이 저로서는 2~3살 된
네네츠 갓난쟁이가 생피를 아무 거
리낌 없이 마시는 장면이었지요.

저녁에 순록(약 1,000마리)가 베이
스캠프로 돌아왔다. 토라가 우리를 위

해 한 마리를 죽였다. 아나의 해체 장면이 좋았다. 딸 리다가 뼈를 빨아먹는 광경은 옛날 알래스칸 에스키모 모습 그대로다. 다 같이 갓 잡은 순록으로 식사를 했다. 혀가 이렇게 맛있다니.

- 나는 알래스카에서 죽었다.
249쪽 2012. 다반

일본의 전설이라는 야생탐사 사진가 호시노 미치오(星野道夫 · 1952~1996)가 이누이트들과 함께 순록 해체하고 바로 날고기를 즐기는 모습인데, 네네츠 애기와 이누이트 딸 리다와 무삼없이 피 묻혀가며 날고기를 먹는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피를 사람이 먹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 폭넓게 ‘생피를 마시거나’, 여러 요리를 만들어 먹거나 하는 것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아프리카의 삼부루 족, 킬리만자로 일대의 마사이 족을 비롯한 원주

민들이 생피를 마시는 장면은 국내 TV에서도 여러 차례 방영된 바 있고요. 뉴기니나 아마존, 필리핀, 멕시코, 페루, 남미 여러 부족들 중에서도 흔히 발견되곤 하지요. 로마시대엔 흙과 염소의 피를 섞어 ‘알약’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사는 마사이 족의 추장은 피를 섞은 우유를 한 사발씩 마신다. 피를 섞은 우유는 영양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그 추장이 어린 시절,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내 첫 남편 휴고와 나도 세렝게티에 사는 마사이 족 전사들로부터 이 음료를 권해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순간은 내게는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다. 나는 젓당을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유를 언제나 싫어했다. 심지어 아기 때에도 그랬다. 그 우유에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역한데, 게다가 그 우유를 담은 호리병은 늘 소의 오줌으로 씻는다는 말까지 들은 터였다. 나는 억지로라도 마셔보려고 애썼지만, 그냥 시늬에 그치고 말았다. 호

리병에 입술만 살짝 댔다가 아주 환한 웃음과 함께 땀가를 삼키는 듯한 시늉을 했던 것이다.

- 제인 구달. 희망의 밥상.
58쪽 2006. 사이언스 북스

일본에서는 전통으로 자라, 살모사, 잉어의 피가 3대 피 생식의 ‘강장식품’으로 익히 알려져 있고, 베트남에서는 염소 생피에 붉은 땅콩, 깨소금, 후추, 산초가루를 한데 섞어 먹는 요리가 각광받는 ‘보신식품’이라고 합니다.

생피가 아닌 조리된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세계 여러 곳에 너무도 다양한 차림표가 있어 일일이 얘기하기도 번거로울 거 같네요. 우리네 순대와 선지 해장국을 비롯하여 영국의 검은 푸딩, 유럽 쪽의 여러 피가 들어간 소시지들…….

이런 여러 가지 ‘피 음식’의 폭넓은 분포를 보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피가 지닌 영양분을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이고, 그 주성분이 ‘철분’임도 익히 숙지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생피를 마시는 경우도 그 성분이 우수하다도 이유로 있었겠지만, 거기에 덧붙여 일종의 의식(Ritual)과 함께 이뤄진다는데 주목해야겠지요.

①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공급의 지혜(채소·과일이 없는 지역). 그러니까 생명 유지를 위한 비타민, 미네랄 공급 의식이라고 봐야겠지요.

② 용맹함을 인정받으며 소속조직·부족 안의 든든한 한 사람으로 입문하는 성년식·입문식 같은 꼭 거쳐야 할 과정인 거죠.

1) 독성을 지니고 있는 피

복어 독은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테트로’는 4를 말하고 ‘오드’는 이빨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어 독을 복어의 날카롭고 튼튼한 이빨 4개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붙인 이름이지요. 그런데 실은 복어는 스스로 테트로

도독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먹이로 먹거나 몸속에 기생하는 균으로 만들어지지요. 양식 복어에 테트로도톡신(복어 독)이 없는 이유도 독이나 균이 든 먹이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류(조개류와 굴 조개)도 그 자체는 독이 없으나 가끔 삭시톡신(saxitoxin)이라 하는 독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삭시톡신을 만들어내는 물속 미생물이 번성하고 그것을 패류들이 먹을 때입니다. 지중해나 홍해의 조개들에는 이들 미생물들이 번식하지 않아 안전하지요. 버섯 독은 대부분 산(酸)의 한 가지인데 건조하면 독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둘레에 독은 양이 적으면 약효 성분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일본 이시가와(石川)현 노토(能登) 지방에서는 맹독이 있는 복어의 난소를 요리해 먹을 정도입니다. (복어 난소를 소금에 절인 뒤 소금기를 없앤 다음, 찐겨에 다시 1년을 절여 만듦.) 세계에 손꼽히는 독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마 성형을 위해 맞았다는 보톡스이지요.

이렇게 독도 그 양을 잘 조절, 활용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뱀장어에는 이크티오톡신(Icthyotoxin)이라는 독소가 있는데, 열을 주면 없어진답니다. 회로 먹으면 안 되지요.

2) 한국인이 좋아하는 보신으로 쓰는 피

오리, 거위, 사슴, 노루, 고라니, 멧돼지, 소, 돼지……. 자, 얘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로 좁혀보지요. ‘피를 먹는다’는 문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피를 먹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여러 오염이 아무렇게나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맑고 깨끗한 들짐승의 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선모충을 비롯한 기생충, 트리키넬라균 같은 여러 독성을 지닌 세균이 득시글거린다고도 볼 수 있는 피를 굳이 보신용으로 먹어야만 하느냐 이지요.

기실 우리가 흔히 일상으로 먹고 있는 선지(소피)의 경우에도, 또 순대 만들 때 꼭 들어가는 돼지피의

경우에도, 과연 ‘검수’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세월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회 속에서, 바늘로 찢러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들로 득시글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혹시 ‘진짜 선혈’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불행한 절름발이 신세가 아닌지요.

3) 간

이누이트들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사냥꾼들은 사냥한 동물을 해체할 때면 보통 간을 가장 먼저 꺼내 잘라먹기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장 중에서 간을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다른 부위에 견주어 냄새도 특별히 심하지 않은 데다, 아주 ‘영양가’가 높다는 걸 오랜 세월 동안 익히 내림받아 왔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간은 쉽게 상하기 마련이어서 오래 보관해뒀다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자리에서 ‘생간’을 즐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소나 돼지, 닭 같은 집짐승들뿐만 아니고 새, 물고기 따위 거의 모든 동물의 간은 사람이 오랜 기간 수렵·채집을 거치면서 터득한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굳게 자리매김 되어 왔습니다.

4. 스노모빌과 순록(개) 썰매.

사람 사는 기본은 의식주(먹고 살고 입는 것)이지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마 ‘이동 수단(탈 것)’이니겠어요. 로켓으로 달나라 가는 세상에 아직도 우마차로 가야 하는 지역이 지구 위에 남아 있다는 게 신기한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문명의 기구가 편하더라도 이들 지역에선 거의 쓸데없는 것이지요.

이들테면 히말라야나 안데스 고산지대에선 길도 없거니와 ‘경사도’도 너무 가팔라서, 차가 다니지 못하는 거구요. 사막지대에서도 아무리 ‘특수 바퀴’를 장착하고 GPS로 위치

를 점검하며 움직이더라도, 낙타와 사람이 이뤄내는 ‘거북이걸음’의 종합 적합성을 못 쫓아오기 마련 아니겠어요.

북극권에선 더욱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북극권 원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사는 스칸디나비아 사미 족이나 그린란드 이누이트 족들의 경우, 평소 어딜 갈 때는 어지간하면 스노모빌(snow mobile)을 탑니다. 아주 빠르고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요철(凹凸)이 들쭉날쭉한 지대나 위험한 살얼음 상태인 곳으로 움직일 때엔 반드시 순록이나 개가 끄는 썰매를 살려 써야 합니다. 순록이나 개들은, 온몸의 감각으로 이 위험한 곳을 느끼고 바로 멈춥니다. 반면 스노모빌에는 그런 ‘감지기(센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태여 그런 감지기(센서)를 만들자고 하면 오늘날 첨단기술(보기로 들자면 무인 정찰 폭격기)이 그 정도야 만들어 내겠지마는, 그걸 원주민들 일상생활에 알맞게 쓴다는 건 무리겠지요. 한

참 세월이 흐른 뒤에나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갈 테고요. 스노모빌 자체도, 우선 기름을 넣어야 하고 여기저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야 하는데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어 애먹는다면 징그러운 골칫거리가 됩니다.

스노모빌 자체가 아주 추운 상태에서 움직이도록 고안된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곧 구제불능이 돼버리기 일쑤지요. 어떤 경우엔 30분 넘게 ‘다른 불’로 예열을 해서 엔진을 녹여줘야 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물구덩이에 빠져 엔진에 물이라도 들어가면 꽤나 괴로워집니다.

“우리 아이가 봄이 오기 전에 유콘 강에서 죽었어요. 스노모빌을 타고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빠져 죽은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 우리 생활도 백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이제 와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우리에게선 사냥이 중요해. 새로운 생활

은 새로운 생활대로 받아들이고, 옛날 방식은 옛날 방식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 호시노 미치오, 노던 라이즈
178~179쪽 2007. 청어람 미디어

말하자면 원주민 생활방식에서 ‘문명 세계 톱니바퀴’ 속으로 끼어 들어가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브라질 아마존의 마지막 추장(KBS 방영)에서 이런 상황이 소상히 드러나더군요.

순록이 북극권에 적응해온 기간이 무려 50만 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랜 기간 모아온 능력과 감각, 그걸 우리 사람은 고맙게 여기고 소중히 활용해야겠지요. 최첨단 과학 연구자들도 이들에게서 읽어낼 기술이 얼마든지 있을 거고, 원주민들과 이들 동물들이 주고받는 관계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시사점과 지혜를 간파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노르웨이엔 순록 학교도 있어서, 이미 모아둔 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 교육’이 전 세계에 자행되고 있는 중 주국의 강압식 기술 학교에 견주면 눈물겹도록 고마운, 앞날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미래지향) ‘점점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순록(개) 썰매도 실은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동물과 나누는 마주이야기

増井光子(마스이 미쯔코) 일본 수의사이자 동물원 원장.

《동물과의 대화》 책에서.

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가

사람은 적인가 이웃인가

원숭이는 이만한 능력이 있고, 말은 이런 성질이 있고, 개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이런 때이다— 동물들의 거짓 없는 모습에 대하여 당신도 생각을 다시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들에 대한 오해를 없애는 것이 진실한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면 도대체 동물들은 우리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한때로서 보고 있을까? 아니면 아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위험한 동물인가, 무해한 동물인가? 이번에는 동물들의 눈에 사람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한다.

같은 사람끼리도 상대방이 어떤 성질의 사람인지를 판단함과 함께, 상대방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생각을 주고받지 못할 것이다. 동물들의 경우에도 이 점은 완전히 같다.

동물들의 입으로 “나는 당신네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을 속 시원히 듣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들의 표정과 태도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도리 밖에 없는데, 내 경험으로 우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등 동물 말고는 어떠한 동물이나 모두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개나 말과 같은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들짐승들도 그렇다. 아니, 오히려 들짐승일수록 사람에게 대한

주의력은 강한 법이다.

지금까지 아주 사람을 본 일이 없는 동물, 이를테면 남극의 펭귄들도 그 한 가지 보기도. 그들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저 보고 있기만 한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거기에 있기만 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사람이 그들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안심하고 곁에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다.

사납다고 하는 하이에나나 코끼리도 마찬가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깜짝 놀랄 만큼 가까운 데까지 하이에나가 다가왔고, 우간다의 호텔에서는 길들이지 않은 코끼리가 20m 밖에 안 떨어진 곳까지 걸어와서 유유히 풀을 먹고 있었다. 사진기를 들이대도 태연했다.

또 케냐의 ‘산브루’라는 내셔널 파크에서는 코끼리떼 속에 사람들이 탄 차가 갇힌 일도 있다. 코끼리

떼가 곁으로 다가와서 그 떼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쪽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코끼리들도 우리를 무시하고 천천히 먹이를 먹으면서 옮겨 갔다.

평소 동물원에서 느끼는 일이지만, 코끼리건 뿔진 자칫하면 “사람이 기르고 있다”는 기분에만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들짐승과 몸소 마주치면, 잊고 있던 그들의 존재감과 같은 것에 압도되어 “사람이란 것은 조그만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 이상하다. 야생의 상태에서는 사람도 동물도 대등하다. 그 신선한 감개가 견딜 수 없이 매력 있어서 나는 노상 아프리카를 동경한다.

그런데, 보통 들짐승들은 동료들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회 행동은 모두 같은 종(種)일 때만 그렇고, 다른 종과 만나는 것은 먹느냐 먹히느냐 관계 말고 아무것도 없다. 상대방이 자기를 잡으려 하면 재빨리 달아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존재에 대하여 태연하다.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를 찬찬히 살펴본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을 배신하여 그들을 잡으려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려 하면 금방 경계하고 말 것이다.

불행한 것은 동물 중에도 눈치가 빠른 놈과 둔한 놈이 있다는 점이다. 평소에 외적이 많은 지역에서 사는 동물은 위험에 대한 반응이 빠르나, 외딴섬이나 외적이 없는 변두리 땅에서 사는 동물은 둔하고 눈치가 없다. 그들이 사람은 위험한 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벌써 그들의 종족을 유지하는 데에 목숨을 잃을 만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하여 멸종의 구렁텅이로 몰려간 것으로, 모리셔스 섬의 도도와 남아메리카 남단에 살고 있는 포클랜드 이리 등이 있다.

사람은 말이나 코뿔소와 같은 대형동물

동물은 늘 사람에 대하여 재미를

가지고 보며, 적인지 자기 편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알았다. 그러면 뚜렷하게 그들의 눈에 사람은 어떠한 영상으로 비치고 있을까?

과학 잡지에는 물고기 눈, 또는 소나 염소 따위가 본 사람 모습, 곤충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같은 기획으로 경치나 인물의 모습이 게재되고 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접 방법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으나, 그것들을 사진으로 보면 초점이 분명하지 않고, 모습은 흐리멍덩해 보인다.

이야기는 좀 밋나가지만, 이래서는 동물에게 다가갈 경우, 만약 이쪽이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무엇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물들은 상대방을 식별할 때 눈뿐 아니라 귀로 듣기, 냄새로 맡기 그밖에 온갖 기관을 모두 써서 알아내려 한다. 사람은 눈에 의지하는 동물이라서 그 눈의 세계로서만 판단하려 하나, 동물 중에서는 눈보다 코나 귀에 의지하는

것이 매우 많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격언도 동물에 따라서는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맡는 것만 못하다”고 해야 할 경우도 있다. 개도 그런 경우이다.

일반으로 말해서 낮에 움직이는 동물에는 눈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많다. 원숭이와 거의 모든 새 종류가 그렇다. 그리고 밤에 다니는 것은 냄새 맡고 귀로 듣는 것이 예민하다. 위와 같은 바닷 밑에서 사람을 눈으로 판단하면, 사람은 우리 나라 사람의 경우, 체중은 대개 50~60kg 신장은 1백50cm~1백65cm가 아닐까? 체중만으로 동물계에서 자리를 따져보면, 중간 크기의 산양과 같은 급이다. 게다가 좀 호리호리한 편이다. 북해도(홋카이도)의 사슴은 수컷이 100kg, 암컷이 60~70kg이나 된다. 우리 나라의 재래종 사슴은 50~60kg급이다. 작은 곰인 말레이 곰도 70~80kg이나 된다. 추운 지방에서 사는 불곰은 300kg에 가깝다.

그러나 동물의 크기를 생각할 때,

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그 점에서 키가 작아진다. 사자는 아주 힘세고 체중도 많은 동물이지만 그 키는 80~90cm 정도이다. 들짐승이라 하더라도 키가 90cm를 넘는 사자나 호랑이는 좀처럼 드물다고 한다. 두 발로 서는 동물은 흔하지 않지만, 만일 사자가 뒷발로 서면 네 발로 서 있을 때보다 훨씬 크고 위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이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지 위압감을 가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는, 기린은 머리가 6m 높이에 있어서 언제나 밑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리하다. 사실 다른 종과 같이 키워보면 기린은 우세하고 강하다. 물론 그것은 한 가지 수단이지, 그것만이 유리해지는 조건은 아니다. 동물에게는 기력과 공격력도 있다. 사자는 그와 같이 큰 기린도 습격하여 쓰러뜨리니, 우러러보아야 할 만큼 큰 동물을 노리는 그들 사자의 정신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동물계에서 어느

정도 되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체형으로 치면 중형급이지만 신장으로 치면 꽤 큰 편이다. 어떠한 동물과 비교해도 상대방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놀라울 정도이며, 상대방의 크기를 우선 눈이 있는 데에서 판단하는 듯이 보인다.

1백50cm의 높이에 눈을 가진 동물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꽤 큰 동물이다. 말·소·코뿔소·하마 따위 중량급이 그렇다. 그 이상으로는 코끼리나 기린 따위다.

신장이 배가 되면 보통 몸무게는 3배가 된다. 높이가 1백50cm나 1백60cm가 되는 동물은 체형에 따르기도 하지만, 체중은 400kg에서 2t 정도나 된다. 아무래도 사람은 이 큰 동물의 부류에 드는 것이 아닐까?

사람의 체형은 앞뒤로 알팍해서 부피가 없다. 말린 오징어와 같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는 높은 자리에 있는 눈에서 득을 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몸을 낮추면 돌아오는 개

눈의 자리와 관련하여 눈길을 바꾸면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재미있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개를 훈련시킬 때 겪어보았을 것이다.

개를 훈련시킬 때 첫 과제로 “이리 와!” 하는 과목이 있다. 부르면 바로 주인 곁에 돌아온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날마다 먹을 것을 주니까 부르면 으레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놓인 개는 좋아서 뛰논다. 둘레에는 개의 재미를 끄는 것이 많다. 아무리 불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주인은 마음이 상한다. ‘이놈의 강아지!’ 하고 생각하면서 잡으려고 쫓아간다. 개는 재미있어서 더욱 달아난다. 마침내 주인은 울화통이 터져서 잡기만 하면 혼내주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마음이 개에게 전달되어 무서워서 더 달아난다.

이런 때처럼 화가 나는 일은 드문데, 그렇다고 마구 울화통을 터뜨린

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 우선 눈의 자리를 바꾸어 보자. 옹크리고 앉아 보자. 앉기만 하면 개의 태도는 달라진다.

서 있을 때는 바로 곁에까지 왔다가도 손을 내밀면 살짝 달아나던 개가 고분고분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엔 개도 주인을 화나게 한 모양이라는 것을 느끼고 주인을 달래려고 얼굴을 훑으러 오는 일이 많다.

그러니 그런 때는 사람도 개를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개와 사람의 사물에 대한 이해 정도는 차이가 있다. 개는 얼른 오지 않았다고 해서 꾸중 듣는다고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불러서 가까이 갔더니 무슨 까닭인지, 주인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나를 때렸다. 맞는 것은 싫으니까 다음부터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고,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냉정하게 생각

해서 개의 마음으로 헤아려야 한다.

앉아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땅바닥에 눕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개는 거의 틀림없이 돌아온다. 돌아오는 까닭은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보니 무슨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모둠 생활을 하는 동물은 동료가 위험에 놓이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평소와 다른 자세는 상대방의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서 있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졌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까닭은 키가 고작 50cm밖에 안 되는 개에게 있던 위압감이 아주 없어졌다는 점이다.

원숭이는 사람을 순위 매긴다

동물들은 사람의 남녀 차이, 그리고 늙고 젊은 차이를 분간할 수 있을까? 모든 동물이 분간해 내는지 어쩐지는 모르나 원숭이는 분간하는 것 같다. 남녀 차이에 따라 구별

하는 것인지, 체격이 크고 작고에서 오는 힘 관계에 따라 분간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어쨌든 구별을 한다.

뚜렛이 구별해 내는 것은 일본원숭이와 게잡이원숭이 같은 마카크속(屬)이라 하는 원숭이들이다. 그들은 몇십 마리로 된 모뎀을 만들며 무리에는 지도자가 있고 모뎀 안에는 서열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원숭이들은 사람에게 길러지면 사람에게도 서열을 매기려 한다. 가장에게는 저항하지 않으나 부인이나 아이들에게는 으스대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 집에 고용인이 있으면, 원숭이는 그 고용인에게 가장 꼴찌 순위를 준다.

원숭이는 사람 사회의 관계를 날카롭게 살피서 누가 우두머리인가를 결정한다. 말투나 태도로 평가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여자나 아이들을 깔본다. 원숭이가 이빨을 드러내고 얼러 대기만 하면 금세 무서워하기만 할 뿐, 원숭이에게 반격하여 혼

내주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체격이 작아서 힘이 약하다는 것도 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면 힘 관계만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차원이 낮은 평가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으나 감탄하게 하는 점도 있다.

미국에서 관리자의 체격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체격이 좋은 사람이 압도할 만큼 많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 관리자가 되면 사람은 차츰 배가 나오고 뚱뚱해져서 이른바 판룩이 붙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단순히 중년이 되어서 살찐 것일까, 아니면 못사람 위에 서는 지도자로서 체격의 우위가 요청되는 생물 근거에 따른 것일까? 어쨌든 체격이 좋은 사람은 마카크 속 원숭이 사회에서는 꽤 상위에 올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원숭이들은 자기의 순위를 높이려고 실력 뽐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사람이 원숭이를 억누르기 위하여 실력을 보이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몽둥이나 끌신(슬리퍼) 같은 물건을 무기로 삼아 원숭이를 때려서는 원

숭이를 짐체로 굴복시킬 수 없다. 원숭이는 무기 자체를 무서워하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깔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원숭이를 정말 혼내주려면 맨손으로 대결해야 한다.

작가 시모자와 강(子母澤寬) 씨가 원숭이를 제재하는 방법을 원숭이 조련사에게서 듣고 말썽꾸러기 원숭이를 맡았을 때 원숭이의 목을 물었더니, 원숭이가 그다음부터는 고분고분 해졌다는 것이 그의 수필 『애원기(愛猿記)』에 써어 있다. 이것은 원숭이의 심리를 잘 파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나면 원숭이는 상위에 있다고 보는 사람의 말은 고분고분 잘 듣고 반항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까지 일본원숭이를 노리개 동물로 삼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리개 동물이 되는 원숭이는 대부분 마카크 속의 원숭이다. 다행히 원숭이에게 지도자라고 인정받은 주인은 팬찮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원숭이

가 위험한 동물이다. 원숭이가 이 사람을 상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할퀴고 물어뜯는 따위 사고가 일어난다. 원숭이는 노리개 동물보다는 동물원에서 보기만 하는 것이 원숭이를 위해서도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다.

체격이 좋은 남자들을 경쟁자로 보는 우두머리 원숭이

침팬지들의 사람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 사람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우리 앞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모인다. 간혹 침팬지에게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둘러 놀려대는 손님도 있다. 그러면 침팬지들도 돌을 던져 응대한다. 잘 던진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으나 교묘한 패대기 치기(언더드로우)다.

이렇게 사람에게 돌을 되던지는 반응을 하는 원숭이는 대개 무리 속의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인 수놈이다. 다마(多摩) 동물원의 우두머리는 지금 ‘조오’인데, 조오가 없는 동

안은 좀 더 젊은 수놈인 다로오가 우두머리 노릇을 한다. 다로오가 어렸을 때는 다 자란 수놈인 페페가 맡아 했다.

이와 같은 수컷의 시위는 누구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일정한 구분이 있는 것 같다. 조오가 반응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체격이 좋은 남성에 대해서이다. 털북숭이인데다가 몸집이 큰 외국인이 앞에 서면 영락없이 철문을 탕탕 두드리며 스스로 용기를 내고 돌맹이, 흙덩이 같은 것을 주워 방사장을 달려오면서 상대방에게 던진다.

이것은 상대방을 경쟁자로 보고 자기의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극도로 흥분할 때는 특정한 사람 뿐만 아니라 딴 사람에게도 행패를 부린다.

나는, 조오가 매긴 뜻에 따른다면 경쟁자가 아니지만 이상하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다. 조오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내가 원내에서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 오기만 하면 반드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원숭이 중의 어느 한 놈이 주사를 맞아 혼이 났다. 그러니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조오는 돌을 던지며 나를 꺼리는 것이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원숭이를 꾸준히 치료하면 그 수의사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일본원숭이가 입원하여 내 병동에 들어왔을 때 치료할 사람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 원숭이는 내가 날마다 돌보아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주사 놓거나 약 먹여 원숭이를 괴롭히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원숭이를 붙잡아 달래는 노릇을 맡고 주사는 딴 수의사가 놓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숭이는 우리 예상과는 달리 주사를 놓은 이 수의사를 상위에 올렸다. 그 원숭이는 아마도 날마다 고통을 당한 끝에 그 수의사에게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거나 무섭고 역센 사람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

좋은 책을 이렇게 번역하지 맙시다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편집부

옛날농사법(유기농법)

J.I 로데일

복음출판사, 최병철 옮김

지렁이로 키운 닭

내가 재미(흥미)를 갖게 된 일 한 가지(하나의 사례)가 있다. 코네티컷 주 뉴타운에 사는(뉴타운의) A. F. 코닉 씨의 다음과 같은 편지였다.

“지렁이와 닭에 관한 재미(흥미) 있는 보기(예)를 소개합니다. 1941년 말쯤(경) 우리는 오래된 산양 방목지를 반반하게 고르고(정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렁이가 많이(대량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원인인지 닭이 일어서지 못하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세 마리를 남기고 전부 처분해 버렸는데 그

세 마리에게는 먹이로(사료로서) 지렁이를 먹였습니다. 그러니 두 마리는 2주 뒤(후)에 도로 살아났고(회복되었고) 한 마리는 사고로 죽어 버렸습니다.”

그 뒤(후) 얼마 있다가 태어난 지(생후) 3주 정도 된 병아리 한 마리가 마비를 일으켰다. 그리고 구석에서 움직이거나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보통 닭 키우는 사람은(양계가는) 이러한 경우 돌보지 않아서(않으므로) 죽어버리는 것이다. 코닉 씨의 일이 생각나서 지렁이를 먹이기로 했다. 나는 병아리 앞에 지렁이 한 마리(한 마리의 지렁이)를 놓았다. 그랬더니 병아리는 그것을 먹어 버렸다. 그 뒤(후) 날마다(매일) 지렁이를 25마리씩(25마리의 지렁이를) 주었다. 나흘째에는

전과 같이 휘차게(활발하게) 둘레를(주변을) 뛰어다녔다. 이 보기(예)가 증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할(금후의) 실험이 이 이론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1943년 여름 우리는 재미(흥미) 있는 실험을 했다(실시했다). 로드아일랜드 드레드 품종의 3개월 된 암탉을 10마리 데려와(사용하였는데) 다섯 마리씩 두 곳에 나누었다. A곳 닭 무계를 먼저 달아 보니 모두(총) 4.7kg(10파운드 반)이었다. 그 닭장(양계장)에서는 보통 먹이(사료)를 주었다. B곳은 맨 처음(최초의) 무게가 5kg(11파운드)이었는데 보통 먹이(사료)를 줄이고 날마다(매일) 지렁이를 주어 키웠다.

실험은 약 6개월 걸렸는데 그 결과는 매우 재미(흥미) 있는 것이었다. B곳 다시 말해(즉) 지렁이로 키운 쪽이 무게가 많이 늘고 털이 반들거렸다(윤기가 있었다). A곳의 닭보다 B곳의 닭이 활발하고 생기가 나서 건강하게 보인 것은 떠올릴(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A곳 닭은 6.5kg(14.5파운드)으로 38%밖에 늘지 않은 데 대면(비해)

B곳 닭은 7.7kg(17파운드)로 54%나 살찐(증가한) 것이다.

1942년 『미국 농업연감』 1033쪽(페이지)에는 닭의 몸이 저항력을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에(형성하느냐에) 대한 확증을 다음과 같이 내놓고(제시하고) 있다.

“우유와(젖) 육류 형태의 동물성 단백질은 회충에 대한 닭의(의) 저항성 늘리는데(중진에 대한) 중요한 보조 먹이(식료)가 되며, 식물성 먹을거리(식료)는 기생충의(의) 들어오는데(침입에 대한) 저항성을 조금도(전혀) 길러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타민A와 비타민B가 풍부한 식물은 닭의 선충류에 대한 저항력을 늘린다(증가시킨다). 그러나 비타민B 복합체(가(의)) 모자라면(결핍은) 분명히 기생충을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렁이는 닭에게 가장 훌륭한 형태의 단백질이며 필요한 비타민이 들어(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로 자연은 닭을 위해 (특히) 지렁이를 창조한 것처럼 보인다.

회충 때문에 고통을 겪어 본(경험

한) 사람들에게는 지렁이와 다른 벌레를 쉽게 잇는(연결시키는) 묘한 해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회충 말고도(이외에도)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가금류를) 괴롭히는 것으로서 모래주머니 벌레(사냥충), 위장 벌레(위충), 껍질 벌레(각충), 피 빠는 벌레(흡혈충), 눈 벌레(안충), 기관에 사는 벌레(개취충), 창자에 사는 벌레(조충) 들(등)이 있다. 기생충으로(에 의한) 비참한 경험을 한 사람은 누구나 지렁이 말만 들어도 심리(심리적인) 작용으로 싫어할 것은 사실이다. 경험이 없으면 보통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험이나 화학비료 시대보다 더 옛날(이전의) 많은(무수한) 농사꾼들은(농민에 의하면) 유기농법으로 가꾼(재배된) 좋은 먹이를(식물을) 먹고, 넓은 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지렁이와 여러(기타) 벌레를(곤충을) 먹는 닭이 대단히 건강하다고 했다. 요즘 같이 기업으로 꾸러가는(기업적인) 닭 주인(양계가)의 우리(케이지) 속에서 걸리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고, 영양 가치가 높고, 맛있는 달걀(계란)과 고기가 나온다는(공

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조사와 비교 실험이 있어야만(실시되어야만) 한다. 나는 단지 내 자신의 경험에서 두세 가지 실마리와 재난 같은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는 닭 키우기(양계)를 위해 도움말(조언)을 한 것뿐이다(불과한 것이다).

모든 농장, 더구나(특히) 유기농법을 하는(실천하는) 농장에서는 닭을 키워야만 한다. 그리고 농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닭을 많이 키울 수 있다. 닭 키우기(양계)는,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적어도 양을 중요하게 보는(중요시하는) 것보다 질을 더욱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끝맺음(결론)

결론은 앞날(장래)에 기대를 걸어볼 일이다. 그리고 농업의 앞날은(장래는) 매우 유망하다. 지난(과거) 50년 동안(간) 일반으로(일반적으로) 해운(실시해운) 기업 같은(적) 농업은 거의 전 세계에서(에 있어서) 실제 농사꾼(농민),

농업학교 흙(토양) 생물학자, 그밖에(기타) 과학자, 영양을 연구한 의사, 동식물 병 원인을 탐구하는 전문가와 (빛) 후세를 위한 천연자원 보존에 관심을 가지는 보호주의자(에 의해) 반대운동에 도전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개척해 나갈 길(개척 전선) 이 끝없이(한없이) 서부로 뻗어 새로운 땅을(토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미국의 국토가 끝없다고(무한으로) 느꼈던 때에는 나쁜(열악한) 농법으로 땅을 써 없애서(토지 소모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 댄을(개발할) 대륙이 있으니(있으므로) 농장을 함부로 써서 못 쓰게 만들어도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써버려서 못 쓰게 된 땅, 많은 사람 때문에(에 의해) 버려진 농장, 무서울 만큼 흙모래(토사)로 엉망이 된(황폐해진) 땅(토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사꾼(농민), 병을 피하려고 비타민제로 튼튼하게 하지(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먹이(식물) ……(등등).

이러한 것을 눈앞에 맞닥뜨린(당면한) 우리들은 지난날(과거)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오늘날(현대) 농업의 흙(결핵)을 깨닫고 흙(토양)의 복잡한 성질, 동식물의 요구와(빛) 우리들 생활 기본조건 다시 설계(재설계) 따위를(등을) 지난날(과거)에 생각해 온 것보다 더 엄숙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지나치게(혹심하게) 폭 꺼지고(침식되고) 못 쓰게 된 흙(토양)은 하룻밤 사이에 되돌릴 수 없지만 기름진 정도(비옥도)는 되찾을(회복될) 것이다. 모든 땅은 엉망이 되었더라도(황폐하였다가) 슬기롭게(현명하게) 다루면(다름으로써) 시간이 지나(경과함에 따라) 다시 농장이나 숲으로 만들 수 있다. 나빠지기는(악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엉망이 되지(황폐하지) 않은 농장은 그만큼 빨리 좋아짐(개량될) 수 있다. 땅이(토지가) 너무나 빨리 풍요로운 땅으로 바뀌어(변해) 놀랄 때가 가끔(종종) 있다. 그 비결은 거름을(퇴비를) 쓰는(사용하는) 농사꾼(농민)만이 알고 있다. 아직 기름진 정도(비옥도)를 잃지 않은 땅(토지)도 거름으로(퇴비에 의해)

그것을 보존하며, 또 끊임없이 좋아질(개량할) 수가 있다.

이미 말한 대로(비와 같이) 우리는 농업의 흐름(결함)이 어디 있는지 지난 날(과거)보다 더 확실히 느끼며 다행히도 거름(퇴비) 중심의 농원예가 되살아나는(부활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가리킬(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농업 문제들(에 있어서) 가르쳐주는(지도적인) 많은 사람(인물)들이 흙이 썩어야 하는(토양에 있어서 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큰 도시(대도시) 신문 원예기자는 늘(항상) 짚 단으로 덮어주기(멀치), 두엄(구비)류 또는 거름에(퇴비에 의해) 부식을 넣어주는(첨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르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큰(최대의) 원예잡지, 농업서적, 정부 간행물, 농업학교 간행물로 이 문제에 관한 많은 이로운(유익한) 기사를 읽을(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서툴거나(미숙하거나) 잘 하거나(직업적이거나) 물을 것 없이 몇 십만 명의 농사꾼(농민)이 그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거름(퇴비) 농업을 하여(실

시하여) 거의 모든(대개의) 경우 그것이 과학(적) 농법보다도 뛰어난지(우수한지) 어떤지를 스스로 실험하고 있다. 농업기계 제조업자가 거름을(퇴비를) 다루는(취급하는) 규모가 큰(대규모) 설비로서 특별한 기계를 만드는(제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미국 농사꾼(농민)을 바꾸려고(전향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들 농사꾼(농민)이 거둔 성과와 그들 자신의 실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다.

거름으로(퇴비로) 바꾸는(전향하는) 가장 큰(최대) 까닭(이유)의 하나는 땅을 좋게 만드는데(토지 개량을 시작하는데) 돈(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나는 유달리(특히) 경험이 없는 사람과 농장이나 시골 마을(촌락)이 가난하여 돈(현금)을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작은 농사꾼(소농민)을 생각하고 있다. 바로 그곳(그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순전한 찌꺼기(배설) — 가랑알(낙엽), 잡풀(잡초), 부엌 찌꺼기, 외양간(축사)의 깔짚 그리고 짐짐승(가축)의 똥오줌을(분뇨를) 거름으로(퇴비로) 만들 수 있다. 논밭은(농지는) 찌꺼기(잔물)의 양

에 따라 한 번 또는 두 번 넉게(이삭) 주면서(좁으로써) 기름진 정도(비옥도)를 되돌릴 수가 있다. 값비싸거나 모르는 재료 때문에 무거운 부담은 들지 않는다. 거름(퇴비) 준비가 되기 전에 땅힘(지력)을 높이려면 짚단으로 덮어주기(멀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의 아니 한 푼도(전혀) 돈을(비용) 들이지 않고도 아무 방해(장애)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색이다. 농장 또는 집(가정)에서 나오는 자원 말고는(의외는) 아무 것도 기대지(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는데 정부의 계획도, 전국 자원조사도, 보조금도 필요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은 1945년 6월의 『조사화보』에서 J. P. 맥크에보이의 가장 재미(흥미) 있는 논문으로(에 의해) 입증되었다. 그 논문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80km(50mile) 떨어진 작은 골짜기(계곡)에서 하고(실시하고) 있는 스펜서 핫치의 일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그 지방 인디언들에게 땅과 짚(가정)을 어떻게 고칠(개선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기 혼자 경영하는 모범 농장을 열었다(개설했다). 핫치 씨는 가르치거나 설교도 하지 않고 다만 실제로 한(실행한) 것뿐이었다. 맥크에보이의 논문을 인용해 보겠다.

“힘없는(빈약한) 땅(토지)에서 가꿀(재배할) 수 있는 단 하나(유일한) 곡식(작물)은 가난뱅이라고 전해왔다. 가난(빈궁), 모름(무지), 아픔(병)은 멕시코 에서도(에 있어서도) 다른 곳과 같이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모두가 한꺼번에 그리고 뿌리부터(근본에서부터) 고쳐가야 할 일이다. 핫치는 뿌리(근본) 다시 말해(즉) 몇 세기 동안 함부로 써서(남용으로 인해) 못 쓰게 된 흙(토양에서부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끔찍한(참혹한) 한 필지의 땅을 구하여 거기에 아무리 가난한 농부라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식물과 자연의 비료, 다시 말해(즉) 거름을(퇴비) 열심히 주었다. 그랬더니 둘레(주변)의 다른 밭보다 키는 2배나 되고 생산성도 4배나 되는 옥수수가

자랐다. 또 해충이 인디언의 9종류 되는 콩을 모두 못 쓰게 만들었으나 핫치의 콩에는 벌레 한 마리(한 마리의 벌레)도 붙지 않았고 잘 자랐다(성장했다). 그밖에 다른 그의 밭은 과수나 목초가 달마다(매월) 뒤를 이어 기적을 보여주었다.

핫치는 3년 동안 온통 엉망이 된(황폐한) 글짜기(계곡)의 흙(토양)에게 젊음을 되찾게 하고 수확이 풍성한 작은 낙원으로 바꾸었다(변화시켰다). 막 크에보이 씨가 알려주듯이(지적하듯이) 핫치의 본보기(실례)는 인디언들 속에 널리 퍼져가게 되었다. 다시 말해(즉) 핫치는 여기서 놀랄 만큼 적은 돈으로(싼 비용으로) 곡식, 열매(과일), 짐짐승과(가축 및) 꿩(배적한) 생활을 나아가게 해(발전시켜) 주었는데 그것은 많은 멕시코 사람들을 이롭게 한 것이(유익하게 했음에) 틀림없다. 가장 작은 닭장부터(계사로부터) 핫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건물)은 가장 싼값의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논문을 보면(에 의하면) 핫치의 일은 큰 감명을 주었기 때문에 전국 가톨릭 농촌생활회의의 비서인 L. G. 리구치 신부는 두 번씩이나 그를 찾아왔다(방문했다). 두 번째는 그 회의의 장인 페오리아 시의 슈라만 사교(司敎)도 같이 왔는데(동행했는데) 이때 사교는 “세계에서 농촌 선교로 나가는 모든 성직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말했던 것이다).

거름(퇴비) 농법으로(에의) 바꾸기는(전환은) 단순히 짚단으로 덮어주기(멸치)와 뿌리는(살포식) 거름(퇴비) 만들기(이것은 짚단으로 덮어주기(멸치)에 똥오줌(분뇨)을 더 넣은(첨가하는) 것뿐이다)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고(가능하고) 그 돈도(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런 사실로 거름(퇴비) 농법으로(에의) 바꾸는(전환) 계획은 이주(극히) 단순하고 널리 퍼질만한(보편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화학(적) 또는(혹은) 생물학의(생물학적) 깊은 지식은 알 필요 없으며 알칼리성이 든 산성이든 어떠한 흙(토양)에도 맞출(적용될) 수 있는 계획이다. 나는 모

르는 것을(무지름) 싫어한다. 그러나 핫치의 모범 농장에서 배우고 있는 멕시코 인디언이 화학으로 된(화학화 된) 농업의 착잡함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미국의 날뽀팔이꾼(이동 농업 노동자) 또는(혹은) 가난한 농사꾼(농민)은 어떠했을까? 오랫동안 어려운 화학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않는 한)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공부는 선튼(미숙한) 원예가나 농사꾼(농민)들에게 알맞지(적합하지) 않다.

이 책에는 이따금(간혹) 경험이 적은 농사꾼(농민)들에게 거름으로 가꾸기(퇴비 원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직업(직) 농사꾼(농민)은 유기농법을 지나쳐도(간과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었다(정반대이다). 이 책은 주로 농사꾼(농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작은 밭을 농사짓고(경작하고) 싶다거나 또는(혹은) 주말농장을 갖고 싶은 수백만의 미국인이 하는 걱정을 안다. 사람들은 화학농업의 번거로운 기술과 이 책에서 다룬(취급한) 여러 문제로(에 의

해) 겁이 생겨 땅으로부터 멀리 쫓긴 듯이 생각할 것이다. 요즘(최근)에는 농업이 너무 복잡해지고 별로 수익성도 없어졌다. 땅이 깎여나가지(침식), 흙이 없어지지(토양의 소모), 해충과 싸워야하지(해충과의 싸움), 농약 뿌려야 하지(농약 살포), 비료가 비싸서 돈이 많이 들지(비싼 비료로 인한 많은 비용)……. 그러나 줄어든 수확은 보람 없는 농업으로 빠뜨려(전략시책) 버렸다. 경험이 없는 농사꾼(농민)은 1년이나 2년에 농사를 집어던진다. 도시로 통근하는 지식 있는(지적) 직업인이나 실업가도 많고 또한 ‘시간제(파트타임) 농업’도 단념하고 겨우(불과) 몇몇 관상용 꽃나무나 감자, 토마토 정도의 주요 곡식(작물)을 가꾸거나(재배하거나) 그것마저 그만둬(포기해) 버리고 모두 목초지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도 과학(적) 농업의 복잡함(복잡성에 의해) 가로막히지만(저지되지만) 았았다면 즐거운 농촌 생활과 농업을 느끼고(반직하고) 워싱턴 못지않게 농업이야말로 가장 좋은(최고의) 놀이(오락)임을

찾아냈을지도(발견했을지도) 모른다.

국가는 식량 공급에 관해서 주로 직업(적) 농사꾼(농민)에게 기대고(의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앞으로(금후) 몇 년 동안(간)은 모든 농업 자원이 너무나(극도로) 쪼들리게(압박하게) 될 것이며, 작은 농사꾼이나(소원 예가나) 서툰 새내기 농사꾼이(미경험자가) 생산한 것이 적어도 지방에서는(지방적으로는) 먹을거리(식량공급)를 보탬(보충할) 것이다. 나는 살아갈 길로(생활 방편으로서) 농업을 믿고(신뢰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즐거움이 회학(회학화된) 농업 때문에(에 의해) 생긴 큰 곤란, 좌절, 많은 드는 돈과(경비 및) 큰 무너짐으로(대과과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잃는다고(상실된다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돌아와 농사꾼(농민)이 되기를 바라는 많은 군인에게(에 의해) 그 준비로 긴 과정의 화학 공부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크게(전체적으로) 볼 때 즐겁고 또 노력의 값(대가를) 보상받는 농사법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거름으로(퇴비로) 농사를 지으면 새 농사꾼(농민)은 꽤(비교적) 짧은(단) 기간에 땅을 올바른 모습의 기름 지고(비옥하고) 생산성 높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현대) 농업의 많은 함정을 거의 아니 완전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뜻을 이루며 참되게 사는(참된 생활) 방법을 찾아낼(발견할) 것이다. 만일 농업을 해본 일이 없는 군인이 눈밭으로(농토로) 돌아와서 화학 기술교육을 받지 않고 과학(적) 방법의 농업을 하려 한다면(시도한다면) 그는 많은 중노동과 고통을 겪은 뒤(후), 실패로 끝날 것이 환하다(확실하다).

흔히(일반적인) 미국에서 살아가는 짜임새(미국에서의 생활양식)는 요즘(최근) 2~3년 동안(간) 매우 빠르게(급속하게) 그리고 세차게(급격하게) 바뀔(변화할) 것이(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전쟁 중의 산업은 지방으로 많이 흩어졌다(분산되었다). 공장은 농촌지역이나 가까운 작은 도시(소도시)에 세워졌다(건설되었다). 인구는 급격하게 움직이고(이동하고) 있지만 터질 듯한

(팽창한) 도시의 혼잡 속에는 농촌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남부와(및) 서부에서 요즘(최근) 화물운임이 똑같아진(평등화된) 것은 미국 안(내)의 거의 모든(대부분의) 지역에 정상이 아닌(비정상적인) 인구가 늘어났다는(인구 팽창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커뮤니티)가 새로운 길(노선)에 따라 계획되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 속에 거를 농사(퇴비 원예)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활환경을 고치는데(개선하는데) 알맞을(적합할) 것이다.

폴 콜러는 그의 책(저서) 『1,200평(1ac)을 사라』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 책은 시골에서 적은 땅을 사서 농사꾼이 되고자 하는 서툰(미숙한) 농사꾼(농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실제적) 친절하 안내서이다. 전쟁 끝나고 난 뒤(전후)에 “도시로부터 반경 80km부터(50mile 내지) 160km 안에 드는(100mile 이내의) 시골은 미국이(의) 새롭게(신) 개척해 나갈 길(개척 전선)이 될 것이다. 그리

고 공장이나 사무소에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여러 마리 닭을 키우면서 열매(과일), 채소(야채)를 자기 힘으로 마련하는(자급하는) 1,200평(1ac) 좁(정도)의 작은 자작농이 1,000만 집(호) 정도 생길 것이다.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과밀 지대)인 산업 지역의 도시는 결국 땅위(지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런 경우 몇 백만의 사람들이 집에서 쓰는(가정용의) 땅에 통근할 것이다. 보통 1,200평(1ac)나 2,400평(2ac) 정도이지 12,000평(10ac) 넘지는 않을 것이다(이상은 아니다). 그들은 이 죽은 땅에 다시금 목숨(생명)을 되 돌려주고 그 땅에다 다시 힘을 불어 주게 될 것이다. 맨 처음(애초)에 우리는 쓰려고(이용하기 위해) 땅을 얻었던(획득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그것을 구하려고(구출하기 위해) 가진(취득한) 것이다.”

이것은 지나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운동은 큰 규모로(대 규모로) 시작되고 있다. 빽빽이 모인(과밀) 도시는 사람들을 먼 시골로 옮

겨가도록(이주하도록) 몰아세웠지만 도시를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생활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농촌으로 돌아가는(귀농) 운동은 갈보기 어려운 운동이다.

그것은 농업을 본직으로 하는 농장을 뜻한다고(의미한다고) 풀(해석할) 수 있고 어느(일종의) 작은 집(가정) 채소밭의 발전이나 통근자의 주말농장을 뜻하는(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거의 모든(대다수의) 사람(인간)이 정신을 되살리기(부활시키기) 위해서 얼마 쯤(다소간) 자연과 함께 사는(전원생활을 접촉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역계획을 쓰는 사람(지역계획의 작성자)들은 이것을 생각(고려)하여 그 지역사회(커뮤니티)의 생활이 도시와 시골을 묘하게 섞는(혼합한 것이 되는) 새로운 산업 지역을 세우려 하고(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필라델피아를 위해 ‘훌륭한 푸른 거리’로 설계한 집집마다(각호마다) 채소밭과 과수원이 붙어 있는 윌리엄 펜의 꿈(희망)이 겨우 본보기(모델) 노릇(역할)

한다는 정도인 것이다.

1945년 7월호 『극장예술』 지에서 크로렌스 S. 스타인은 폴 콜러가 예언한 ‘사라져 가는 도시’ 시대와 같은 말로 앞날에 있을(장래) 극장에 대해 말했다. 그의 말을 인용한다면 이렇다.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는 실제로(사실상) 사라지고(소멸하고) 나중에는(미래의) 지방 도시가 이것을 대신한다고 믿고 있다. 지방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조금도(전혀) 큰 도시(대도시)처럼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인공적인) 높은 건물 숲(빌딩의 집단)은 없다. 다만 넓은 자연숲(자연림), 벌판, 농장과 유원지로 흩어졌다(분산되었다). 작거나 또는(혹은) 알맞게 큰 도시의 신성한 자리(성좌)이다. 지방 도시는 푸른 도시이지 잿빛(회색의) 도시는 아니다. 거리는 공원과 같은 것이다. 건물도 자연환경에 가깝게(밀접하게) 관련되어 지어졌다(설계되었다). 거기는 제대로(효율적이며) 산뜻한(쾌적한) 생활을 위해 만들어졌고(개발되었고) 통합된 환경에서 오는 어우

러진 아름다움을(조화와 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농경, 휴양 또는 산과 숲(산림)을 위해 언제까지나(영구히) 보존되고 넓은(광대한) 지역에 흩어져(분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 지역사회(커뮤니티)는 고속 공중도로로 이어질(연결될) 것이다. 이리하여 시간과(시간적) 거리로도 거의 모든(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현재)보다는 전문극장, 대학극장, 여리(기타) 놀이(오락)시설이나 교육시설에 다가갈(접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앞날(미래)의 구상이 이루어지는(실현되는) 것은 참으로 바랄 수 없는 일이다.

이 농촌으로 돌아가는(귀농) 운동은 진보에 가까운(진보적) 국민이 가장 건전하다고 드러난 것(건전한 것의 한 표징)이다. 지나치게 땅과 거리가 먼 문명은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 신화의 아도니스처럼 국민은 벌판(대지)에 맞닿아(접함으로써) 그 힘을 되살릴(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와 농촌은 서로(상호) 보태(보충해) 주고, 서로(상호) 필요로 하고 있지만

서로 저쪽(상대편)의 문제와 이상을 알아주지(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문명은 모르고(무지하고), 맞서고(대립하고), 그것들이 만드는(개발하는) 인공물 때문에 멸망한다. 농촌으로 돌아가는(귀농) 사상은 우리 국민이 자연과 함께 살기(전원생활)의 필요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움직임(건전한 창조)이다. 이 새롭게(신) 나아가는(계획) 사상은 건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인간)이 땅위(지상)에서 살아남는(생존하는) 것, 건전한 농경으로(에 의해) 강하고 건강한 주민을 보호하고 지키는(존속시키는) 방법을 두둔하기(옹호하기) 때문이다.

다른 개인과(및) 모임(단체)의 일도 천천히(서서히) 하면서 튼튼한 발걸음으로 어렵פות한(공상적인) 희망에서 벗어나 실제(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적) 농촌으로 돌아가는(귀농) 사상의 일부로써 미국 농촌 환경을 뚜렷이 바꾸게(전환시키게) 될 것이다. E. D. 로빈슨의 “더 많이 가지자” 계획(프로그램)

은 콜레의 새롭게(신) 나이기는(개혁) 운동의 길(노선)을 따른 것인데, 취미 생활 높이기(향상) 위해 적은 면적의 집(가정) 텃밭(농원)을 농사짓고자(경작하고자) 하는 통근자에게 정확한 충고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미합중국 정부와(및) 주정부 기관, 4H클럽, 농장사무국, 그레이지(미국 3대 농사꾼(농민) 조직), 많은 농촌 협동조합과(및) 마을 도서관 따위(등) 전국에(을 통하여) 많은 지역사회(커뮤니티)에서 훌륭한 계획(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실행하고) 있다. 그 계획(프로그램)은 농업, 집(가정) 경제와(및) 수공업에 관한 교육, 농촌 가족이 부닥치는(당면하는) 여러 문제 해결을 크게 돕는 놀이(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교육과(및) 농촌 생활을 사회와 아울러(사회적으로) 한층 풍부하게 하는 것에 관한 교육이다.

앞에서 말한 전국 가톨릭 농촌생활회의는 아마 경제와 같은 물질에 관한 문제는 사람(인간)의 소질 자체의 문제보다도 관심이 적겠지만, 그것은 활발히 농촌으로 돌아가는(귀농)

운동을 빠르게 다그치는(촉진시키는) 커다란 힘의 하나이다.

『사회 일반의 행복과 이익(공공복리)』에 실린 에드워드 스키린 씨의 논문 「농촌 생활은 왜 필요한가」를 인용한다.

“전국 가톨릭 농촌생활회의가 말하고 있는 이상은 무엇인가? 흔히 49,000평(40ac)을 넘지 않는 한집안(가족) 중심의 농장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부부와 아이들은 첫째로 식구들의 먹을거리와(식량과) 짐승 먹이를 마련하는데(사료의 자급에) 힘쓰고 필요한 돈(현금)을 벌기 위해 일정한 곡식(작물)과 수공업을 번갈아(겸) 하고 있다. 충명하게 관리된 농장은 그 가족에 대해 확실하게 보장한다. 먹을거리가(식량) 풍부하고 어릴 때부터 농장 일을 아이들이 거들어주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로(경제적으로) 보아 한 가지(하나의) 재산이기도 하다. 더욱 진취성, 책임감, 창조력, 자연미를 느낄(감상할) 줄 아는 눈, 더(보다) 나은 사회(적) 태도를(의) 기르기(육성을) 위해서는 농촌보다(이상으로) 좋은

환경은 따로 없을 것이다.

둘째로 이 회의는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하는(부업적인) 농업을 강하게 지지한다. 부의장인 코네티컷 주 북룩펠드 센터의 파트릭 킨란 신부는 이것에 관해 지구의 해마다 한 번씩 여는 모임(연례회)에서 부업하는(부업적) 농사꾼이(농민으로) 되려면(간주하려면) 적어도 1,200평(1ac)의 논밭을(경작지들) 갖지(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상점에서 사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채소(야채)를 모두 스스로 생산하고, 생활비를 줄이고(경감시키고) 있다. 약간은 돈을 (현금을) 버는 곡식(작물)도 가꿀(재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계절(적) 산업을 꾸린다면(경영한다면) 수익은 상상보다 많을 것이다. 농가에서는 식구(가족)들의 방과 햇빛, 그리고 공기도 충분하여 이 정도 작은 면적의 땅 가꾸기는(경작은) 앞에 말한 대로(바와 같이) 농촌의 가룩한 덕행(미덕)을 좋은 쪽으로 퍼나갈(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잘 꾸린다면(경영한다면) 나중에는 전 생애를 농업에 바치고

싶다고 바라게 될는지 모른다. 그리고 아이들은 틀림없이 땅에 대한 애정을 품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른이 되면 그 작은 농장에서 완전히 한몫의 농사꾼(농민) 생활을 꾸려가고자(영위하고자) 하는 훌륭한 뜻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

이 회의는 가장 재미(흥미) 있는 월간 잡지 『땅과(토지와) 건강』을 펴내고(발행하고) 있으며 이롭고(유익하고) 건전한 농경의 쓸 만한(실용적인) 기사와 함께 농촌 생활을 사회와 정신으로(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한층 보상이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한 암시가 풍부한 기사로 차 있었다. 미국 농촌 생활을 다시 살리는(재생시키는) 것에 관한 또 한 가지(하나의) 앞선(선구적) 사상과 모임(집단)인 『땅(토지)의 친구』는 1940년 60명이었던 회원이 오늘날 7,500명에 이르고(달하고) 있다. 그것은 시골의 지역사회(커뮤니티) 일으며 세우기(재건)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은행가, 저술가, 훈(토양)학자, 자연보호주의자, 원예가, 예술가, 농업기술 보급원, 교사, 농사꾼

(농민), 그밖에 진보에 가까운(진보적) 남녀의 모임(집단)이다. 이 모임(집단)이 내고 있는 계간 잡지 『땅(토지)』은 늘(향상) 이로운(유익한) 가르침이(지도적) 기사에 차 있으며 으뜸가는(일류) 잡지의 하나로 되어 있다.

1945년 봄, 피넨(발행한) 『땅(토지)』에 실린 바티 하이드 베일리의 논문 「밭밀의 놀라움(경이)」에서 인용하겠는데 이 인용으로 『땅(토지)』의 친구' 나 가톨릭 농촌생활회의 의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정직한 농촌으로 돌아가는(귀농) 운동 선구자들의 이상을 잘못 없이 전달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농장은 많은 돈(금전) 소득을 올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늘(향상) 생각하고 있는 편이 좋다고 본다. 우리는 겉치레뿐인(허위의) 우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오직 농사꾼(농민)과 원예가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富)를 쓸모 있게 쓸(이용할) 것을 스스로 새겨야(주의해야) 한다. 농촌 생활에서(에 있어서) 그 사람 자신을 기르는(성장시키는) 예술, 낱들과 동떨어

진(격리된) 생활의 느낌(감상), 아름다운 둘레(주위)와 마음속(내면)의 기분을 높이는 외로움(고독)에 대한 애정 들(등)이 없다면 농촌에서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조용히 숨어 사는 사람(살만한 유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없다면 농촌 생활은 싫증이 난다.

안락하다는 것과, 돈벌이에는 이만하면 된다는 만족이란 없다. 잘 유지되지 않는 농장에서 하는(에서의) 원예는 기쁨이 없다. 잘 끝이 나지 않는 일은 기쁨이 없다. 가진 돈에서 더 많이(현금 이상을) 바라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 그리고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없고, 심장을 뜨겁게 하고 불타는 열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가함 속에는 즐거움이 없다.”

다시금 말하지(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지만 거꾸로(역의 경향), 다시 말해(즉) 농촌을 떠나는(이농) 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은 농산화학의 사상이다. 그것은 농산물을 공업에 대어 주기(공급하기) 위해 큰 규모(대 규모)의

한 가지 곡식만(단작) 가꾸기(재배)를 권장하여 밀이나 목화(면화)와 같은 한(단일) 곡식(작물)을 수천 에이커 농장으로 넓히려고(확대하려고) 한다. 이러한 계획된(계획적인) 상업 같은(상업적) 농업은 살아있는 흙(토양)을 가지고 있기(확보하기) 위한 보호 수단이 강구되어 이어가지(지속되지) 못한다면, 벌써(이미) 이야기한 대로(지적한 바와 같이) 땅(토지)에 재해를 주면서(압히게 함으로) 끝나게 된다. 만일 공업에 원료를 주는(공급하는) 방법이 앞으로(장차)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거름(퇴비) 만들기, 돌려짓기(윤작), 논밭 쉬기와(농토 휴경 및) 풋거름 가꾸기(녹비 재배)는 없으면 안 될(필요 불가결의) 것이다. 숲 부수기(삼림의 파괴), 흙모래 떠내려가 없어진(토사 유실) 지역이 생김(지역의 생성), 땅을(토지를) 엉망으로 만들어(황폐시키는) 땅힘이 없어지거나 깎이는 것은(지력 소모와 침식은) 막지(방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촌의 인구를 줄이고(감소시키고), 또는 그들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롭게(고독하게) 만드는 이

같은 일만 되풀이하는(일관작업의) 기계화 농업은 국내 몇몇 지방에 있는(에서의) 뚜렷한 경향이다. 우리가 아무도 살지 않는(무인) 마을을 바랄(원할) 것인가? 그런(이것에 의한) 해악은 어쩔 수 없는(불가피한) 것도 자연현상도 아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러한 좋지 못한 행동(실행)을 내버려 둔다면(방임해 버린다면) 예언자 미가가(에 의해) 예언한 다음과 같은 값음(보상)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 땅은 그 지역 주민이 한(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인하여) 거칠어진다(황무하리로다).” (미가서 7장 13장)

그러나 나는 우리들이 국민으로서 이렇게 나쁘게(악덕하게) 땅힘(지력)을 억지로 빼앗는(약탈하는) 농경법을 더는(이 이상) 언제까지나 이어갈(계속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그 위험성을 깨닫고 있으며 미국 백성은 본래부터 그 뛰어난 판단력(양식)이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요즘(최근)에 이르러 놀랄만한 낭비와 우리를 과멸로 이끄는 땅 새

로 닭기(토지 개발)의 비극을 맞닥뜨리게(직면하게) 되었는데 슬기롭고(지적이)고 진보스러운(진보적인) 세력은 모두 흙(토양)의 소모는 주민 소모와 같다(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계하고 있다. 오늘날(현대)의 기업 같은(기업적) 농업에 관한 가장 엄격한 비판은 여러 가지 까닭과(이유와) 많은 방법을 가지고 주민을 눈밭에서(농토로부터) 몰아내는 것, 다시 말해(즉) 많은 사람들을 ‘농촌 가장 낮은 계급(프롤레타리아)’— 절망뿐인(절망적인) 산골의 가난한 농사꾼(빈농민), 기력 없는(무기력한) 낡은 땅에 농사짓는 사람(소작인) 또는 떠돌아다니는 일꾼으로(노동자로) 빠뜨렸다는(전락시켰다는) 것이다.

만일 예언을 하라고 한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난(과거) 몇십 년 동안의 농업과(빛) 농촌 생활에서 겪은(경험한) 것보다도 가장 자극 있는(자극적인) 기간이 될 것이다. 알버트 하워드 씨, 그밖에 흙(토양)생물학자들의 앞선(선구적인) 노력은 실로 농업의 실천에서(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고(있으며), 또 농업이나

의약과 같은 여러 방면(다방면의) 연구에 대한 영감을 주는 구실(인스피레이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영양 과학은 아직 유치한 단계에 있지만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게 될 듯하다. 의학은 페니실린의 연극같이(극적인) 훌륭한 쓰는(사용) 법을 발견하였고 흙(토양)세균도 이용해서(에 있어서) 크고 새로운 앞날(전망)을 갖게 하였다.

새로운 시대의 농업 연구는 지난 날(과거)에 있었던 모든 연구보다도 훨씬 크게 국가에 이바지(공헌)할 것이다. 또 건전한 사회를 창조하고 그 사회를 힘과 맛을 주는 땅과 가까이 하도록(필적시키도록) 더욱 더 다독일(촉진할) 것이다. 도시도 농촌 빈민가(슬럼)도 없는 나라, 들이(정원) 붙은 집(주택)과 공원에 우거진 숲이 있는 나라, 풍성한 농장과 행복을 뒤쫓는(추구하는) 즐거운 새 지역사회(커뮤니티) 생활……. 그러면 저절로 건강하고 활기 있는 국민과 국가를 이루게(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확신하는 것이다).

알

1. 지난 5월 14일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열린 세종대왕이 태어난 세종날 경축 행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경복궁 광화문에 한글현판을 걸고 세종대왕 정신과 한글을 빛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 논의해 보자” 밝혔는데 5월 29일 한말글문화단체들은 광화문 앞에서 그를 지지하고 환영하자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우리 모임을 비롯한 한말글단체 대표들은 훈민정음체로 만든 광화문 현판 견본을 보여주면서 “광화문에 훈민정음체 한글현판을 달고 한글을 빛내자”고 주장했다.



2. 5월 31일 김주원 한글학회 회장, 리대로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대한민국 국가 상징거리 출발점이고 세종대왕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에서 영어로 광고문을 설치하고 시장바닥처럼 만들고 행사를 하고 있어 서울시 관계 공무원을 한글회관으로 불러 그 잘못을 따지고 당장 영문 설치물을 철거하라고 항의했다.

3. 한글단체는 부산시가 새로 생기는 법정 동 이름을 ‘에코델타동’이라고 영어로 짓겠다고 해서 반대 시위도 하고 부산시에 항의했는데 5월 30일에 행정안전부가 “국어기본법에 어긋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아주 잘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 반긴다. 그러나 아직 나라 곳곳에 영어 마구 쓰는 버릇은 남아 있어 꾸준히 싸워야 한다.

립

니

다

* 회계 보고 (6월 17일까지)

5 / 16 이재팔 1만원
5 / 24 임관혁 1만원
5 / 24 박현숙 5만원
5 / 25 송영섭 5만원
5 / 27 오승강 10만원
5 / 28 이경애 5천원
6 / 12 홍순명 10만원
6 / 13 남원석 4만원
6 / 17 이재팔 1만원

회보 만드는 값은 1권에 1,700원씩(200부+우편)

135호 회보 만드는데 340,000원이 듭니다. 이번 회비로 들어온 돈은 375,000원이고 저번에 남은 돈(113,190원)이 있어 148,190원 남습니다. 회비가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 ‘우리말 우리얼’ 회비 보내실 곳

입금계좌 : 우체국 300731-01-001609

예 금 주 : 이정우 (이오덕학교)

누 리 집 : <http://cafe.daum.net/malel>

* 1권에 1,700원. 1년에 6부가 나옵니다. *

회보 구독료 : 1년에 10,000원입니다.



우리말
우리얼

제
135
호

2
0
2
4
년

6
월
호

우리말살리는
겨레모임